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2기

울산 애^愛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목차

연수 안내

-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실시 계획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2기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성곽도시 울산'

• 병영성	08
• 학성	27
• 충의사	38
• 서생포왜성	48

부록

• 연수대상자 명단	57
•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58
• 이수증 출력방법	59
• 울산교육연수원 신청사 안내도	61
• [생활 속 거리두기] 연수 중 단계별 지침	64

01

연수 안내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울산 애(愛) 한바퀴(문화와 예술 품은 울산 역사 기행)>
실시 계획

울산애^愛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2회차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성곽도시 울산

세부일정

일자 10월 30일(토)

인원 26명

- 출발 9:00 | 울산 교육청
- 09:20 - 10:20 | 병영성
- 10:40 - 11:40 | 울산왜성(학성공원)
- 12:20 - 13:20 | 서생포왜성 근교 | 점심
- 13:40 - 14:40 | 서생포왜성(+창표당)
- 14:45 - 15:15 | 내드름연희단 문화예술공연(서생포왜성 일원)
- 도착 16:00 | 울산 교육청

전문 해설

김문술 선생님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 직무연수 실시 계획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 역사 기행)

I 목적

- 울산에 대한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 역량 강화 지원
- 지역사랑 의식 고취,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생태계 상생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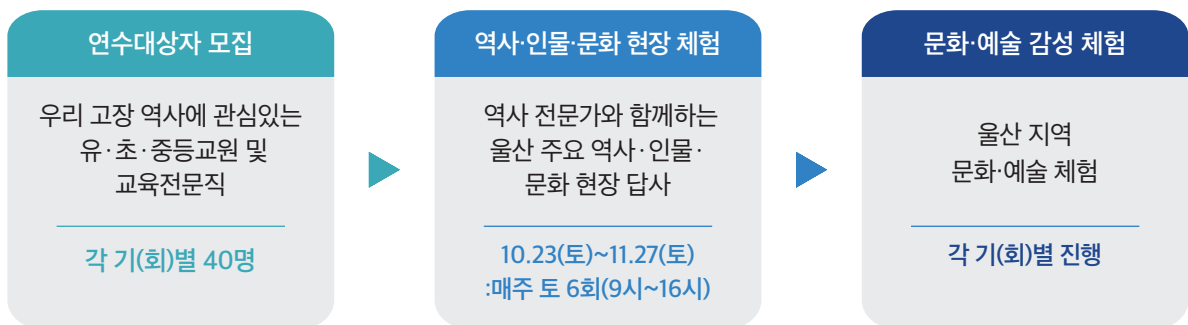
II 방침

- 운영방법 | 역사 및 문화·예술 연수 경험이 풍부한 운영 기관(업체)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연수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운영
- 과정구성 | 울산 권역별·주제별에 따른 현장답사 체험연수 6회(매주 토요일 실시, 각 기<회>당 6시간)로 구성
- 운영관리 | 집합 연수 운영 및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주관, 업무 담당자는 비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로 질 관리
- 연수진행 | 각 기별 차량 2대(1대에 20명 전후로 인원 배치)로 나누어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연수 방법과 장소 변경 가능
- 연수시간 인정 | 1일 연수 참여자는 6시간의 직무연수 시간 인정

III 방침

- 연수기간 | 2021. 10.23.(토) ~ 11.27.(토) <매주 토요일 9시~16시, 6회 실시>
- 연수대상 | 유·초·중등 전 교원 및 교육전문직 240명<각 기(회)별 40명>
- 연수 방법 | 집합 연수
- 연수 장소 | 각 기(회)별 연수 일정표에 따라 상이함
- 연수 시간 | 각 기(회)당 6시간 (총 6~36시간)

IV 과정설계



IV 세부 계획

(울산 愛(애) 한바퀴) 역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울산 지역 현장답사 체험

• 연수 개요

기간	대상	주요내용	비고
10.23.(토) ~11.27.(토) (매주 토요일 9시~16시, 6기 운영)	유·초·중등 전 교원 및 교육전문직 240명 ※ 각 기수별 40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전문가와 함께하는 울산 권역별·주제별 일정에 따른 역사·문화 기행 지역 역사·문화 자원 이해 및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만남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역량 강화 	위탁 운영

• 세부 일정 및 내용

기간	대상	주요내용	비고
1기	10월 23일	울산의 출발, 고래를 찾아	웰니스 체험
	울산암각화박물관-반구대바위그림-집청정-천전리각석-장생포고래박물관		
2기	10월 30일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성곽도시 울산	문화예술공연
	병영성-울산왜성(학성공원)-충의사-서생포왜성		
3기	11월 06일	두 마을 이야기, 방어진과 일산	웰니스 체험
	방어진역사관-방어진일대-슬도-출렁다리-대왕암-울기등대-보성학교전시관-서진문묘소		
4기	11월 13일	울산의 중심, 원도심을 걷다	문화예술공연
	울산동헌 일대-성남동 일대-서덕출공원-구 역전시장(여인숙골목)		
5기	11월 20일	한국사 속의 울산사람	웰니스 체험
	박상진 생가-외솔기념관, 최현배 생가 -이예(석계서원, 근재공고택)-손응교(입암마을, 선바위)-오영수문학관		
6기	11월 27일	울산은 왜 공업도시가 되었나?	문화예술공연
	울산박물관-장생포문화창고-장생포고래박물관-울산대학교전망대-소금포역사관-울산노동역사관		

•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 연수대상자는 직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홈페이지 (<https://edu.ueti.or.kr>)에서 신청하고 선발은 신청 순서에 의함. 단, 1인 1기(회)만 신청 원칙(복수 신청자는 신청과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 신청 인원이 교육정원을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추가모집 실시(선착순 모집이며, 복수신청도 가능)

• 이수 조건 안내

- 대상자 선정 후, 연수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람

【 이수 조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규정 제13조(연수의 이수기준)

- 총 연수시간의 10분의 9이상을 이수한 자
- 다만,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①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으로 결석한 경우, ②불가피한 출장(증빙서류 제출 시), ③코로나19 관련 결석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시)에 한하여 10분의 8 이상을 이수한 자도 이수처리 한다.

• 연수생 협조 및 준수사항

-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연수에 참가하여 알찬 연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기대효과

- 교원들의 울산 지역 탐방을 통한 지역사랑의식 고취 및 내 고장 바로 알기 전문성 함양
- 지역사회 역사·문화·인물·예술 자원이 연계된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프로그램 구안·적용 역량 강화
- 연수 참여 교원 중심의 현장 적용사례 나눔 활동과 지속적 연찬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
- 지역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감성 및 심미안적 역량을 높이고, 울산 예술·문화인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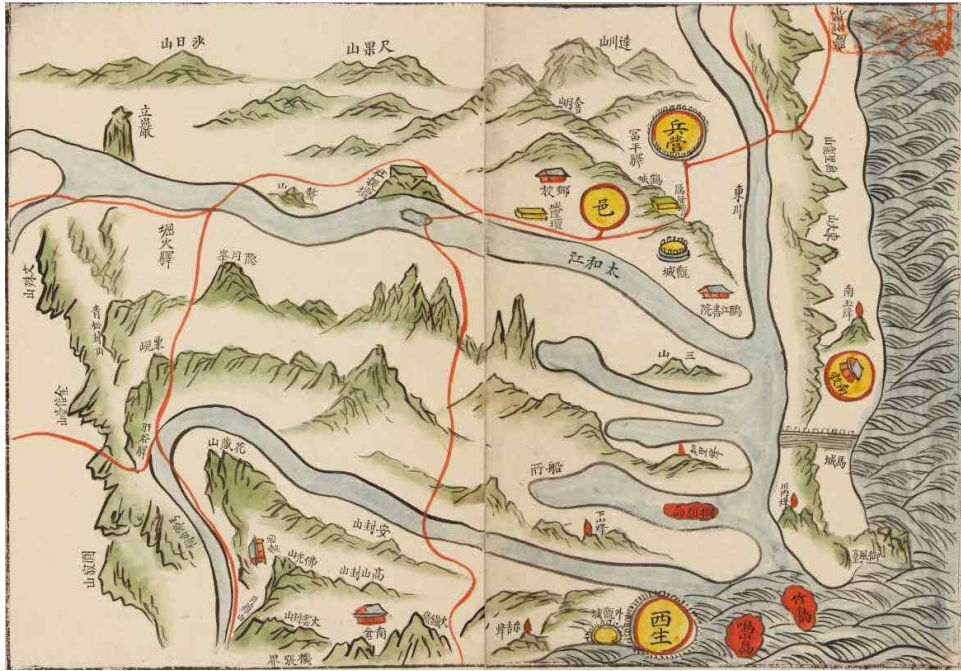
울산 애(愛) 한바퀴, 문화와 예술을 품은 울산역사기행

2기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성곽도시 울산'

-
- 병영성
 - 학성
 - 총의사
 - 서생포왜성

□ 병영성

울산은 신라시대 수도 서라벌의 배후도시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항구를 지닌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태화강 하구에 위치한 반구동은 과거 내황강의 항구였던 내황포(內隍浦)가 있었다. 소금과 곡식이 들고 나는 곳이었다.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시기의 치소는 계변성에서 학성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의 학성공원이 위치한 증성의 북쪽이다. 학성과 증성의 위치는 아래 1832년 경에 만들어진 “경상도읍지” 지도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영성에 올라서 보면 남쪽으로는 바닷가와 바로 이어지는 태화강 하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성임을 느낄 수 있다. 북으로 보면 멀리 달천을 지나 경주로 이어진다. 그리고 동서로 울산 시가지와 동해로 이어지는 길 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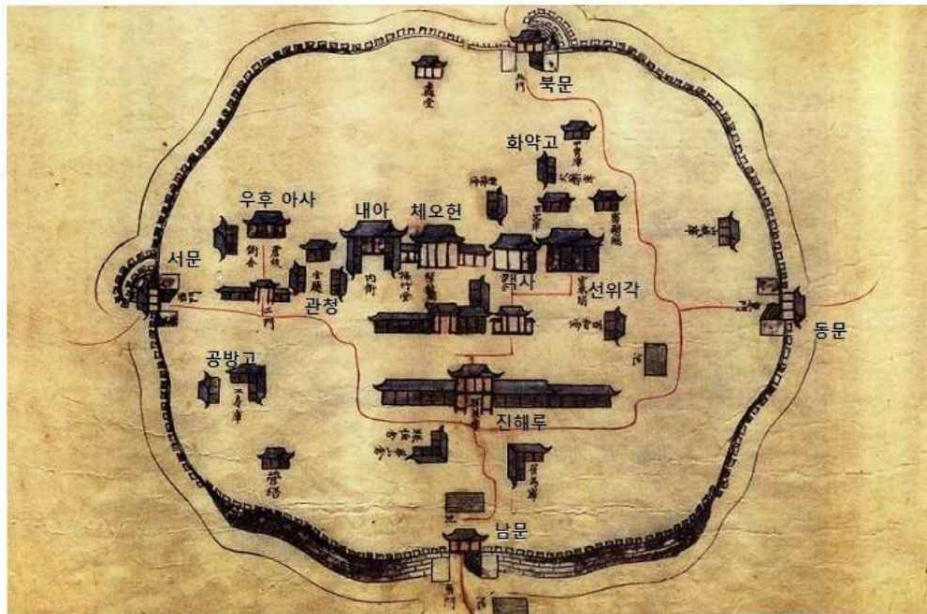
반구동에는 신라시대부터 목책성이 있었고 고려 초엔 토성을 세워 왜구를 막았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후 경주와 울산의 경계가 되는 지점인 토을마리(모화) 인근 기박산성에 경상좌도절제사 군영(경상좌병영)을 설치하기로 했다. 원래 기박산성은 신라시대 부터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왜구를 막기 위해 7세기 경에 축조했던 산성이었다. 하지만 위치가 너무 북쪽이란 것이 문제였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울산은 왜구들의 난동이 끊이지 않았던 땅이었다.

대표적으로 조선 태조 6년(1397년)에 울주 지주사(知州事) 이은(李殷)을 왜구들이 납치해 도망간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조선 초의 통신사로 활약했던 이예(李藝)가 포로로 끌려간 남녀 70명을 데리고 돌아온 때가 태종 6년(1406년)이다.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태종 17년(1417)에 이르러 기박산성에 있던 좌병영을 지금의 병영성 자리로 옮겨오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박산성 둘레에 꽂았던 붉은 기가 동해에서 불어온 광풍에 얽혀 날아오더니 별암산 위를 한 바퀴 돌아 병영성이 세워질 곳에 내려앉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붉은 깃발이 하늘 높이 날아갈 때 축성도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군졸을 시켜 따라가게 했다고 한다.

동천강을 따라 내려온 깃발이 떨어진 자리를 확인하니 마치 소쿠리 모양의 분지로 남쪽만 트여있었다고 한다. 이후 돌아간 군졸의 보고를 받고 좌병사가 당도해보니 과연 성터가 될 만한 곳이라며 감탄했으며, 아마도 신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한다.²⁾ 그 자리를 거마곡(巨磨谷)이라 했는데 그 뜻은 큰 골짜기, 큰 마을이 된다. 이때부터 바로 축성이 시작됐다고 본다.³⁾



▲ 좌병영지도『여지도서』(1765)⁴⁾

병영성 주둔군의 초기 규모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살펴보면 군관(軍官) 399명과 수성군(守城軍) 40명이 배치됐다고 기록하고 있다.⁵⁾ 군사진은 1415년부터 설치했고, 병영성이 완성된 후 조선의 동남쪽 해안(내황포, 개운포, 염포, 서생포)방어를 담당했던 군 주둔지가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큰 훼손을 당한다. 왜군은 이곳을 진지로 삼지 않고 울산왜성(증성, 도산성)을 만들 때 병영성과 울산읍성의 석재를 가져다 썼다.

크게 훼손 됐던 병영성을 다시 재건한 시기는 앞의 「여지도서」(1757~1765)를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시기상 영조 이전에 복구한 것이다. 성의 크기는 둘레 1,836보(약 1.2km), 높이는 12척(약 3.7m) 정도로 타원형 모양을 띠며 서문과 북문에 옹성이 만들어졌다.

2) 울산문화원, 『울산지리지』 962p (1986)

3) 울산시, 『울산광역시사』 조선전기, 473p (2002)

4) 건물이름 한글풀이. 김유신,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의 사회변동과 지역정체성」 (2013)

5)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발굴보고서 [제102집]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Ⅱ」 (2018)



▲ 「영좌병영지도」 일부 건물이름 한글 풀이⁶⁾, 19세기후엽

병영성이 다시 수난을 겪은 것은 일제강점기 직전 나라의 명운이 다해가던 대한제국의 끝자락이다. 1895년 갑오개혁(갑오경장) 때 기존 군대체계의 해산이 진행됐다. 그리고 김홍집, 박영효 등이 주도한 2차 갑오개혁에서 3도 통제군과 각 도의 병영, 수영 등이 모두 폐지되고 시위대, 훈련대가 신설됐다. 지방의 병영은 군대를 통합해 진위대(鎭衛隊)를 창설했으며 울산의 병영에도 잠시 주둔했다. 그러나 1900년대 들어 일본제국주의의 야욕이 가속화 되자 대한제국 군대도 운명을 다하게 된다.

1905년 일본 통감부는 18개 대대였던 진위대를 8개 대대로 감축시켰다. 그리고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군대의 완전한 해산을 요구했다. 이어서 1909년 7월 12일 사법권과 교도행정에 관한 업무를 일본이 강탈해간 기유각서에 이르러 병영성의 생명도 완전히 잃게 된다. 울산의 병영은 부대가 사라지자 내야와 객사 등 관사 건물들의 주인이 사라졌다. 그 장소를 이용해 현재의 병영초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옛 일신학교(사립)가 만들어지게 됐다.

6) 김종기,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공간 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2011)

□ 울산 병영성의 입지와 특성



"경상 좌도 도절제사(慶尙左道都節制使)의 군영(軍營)을 울산군(蔚山郡)에 옮기었다."

- 서기 1417년, 조선 태종 17년 1월 21일

울산 병영성은 1417년(태종 17)부터 만든 성으로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영의 주둔지였다.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읍성이며 해발 45m 이하의 낮은 언덕을 이용해 쌓았다. 성 전체 둘레가 약 1.2km며 높이는 약 3.7m 정도 된다. 처음에는 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든 여장(女牆) 성벽 위에 설치한 낮은 담장 같은 구조물 등 기본적인 시설만 있었지만 세종과 문종 대에 이르러 웅성(甕城), 적대(敵臺), 해자(壕字) 등 여러 방어시설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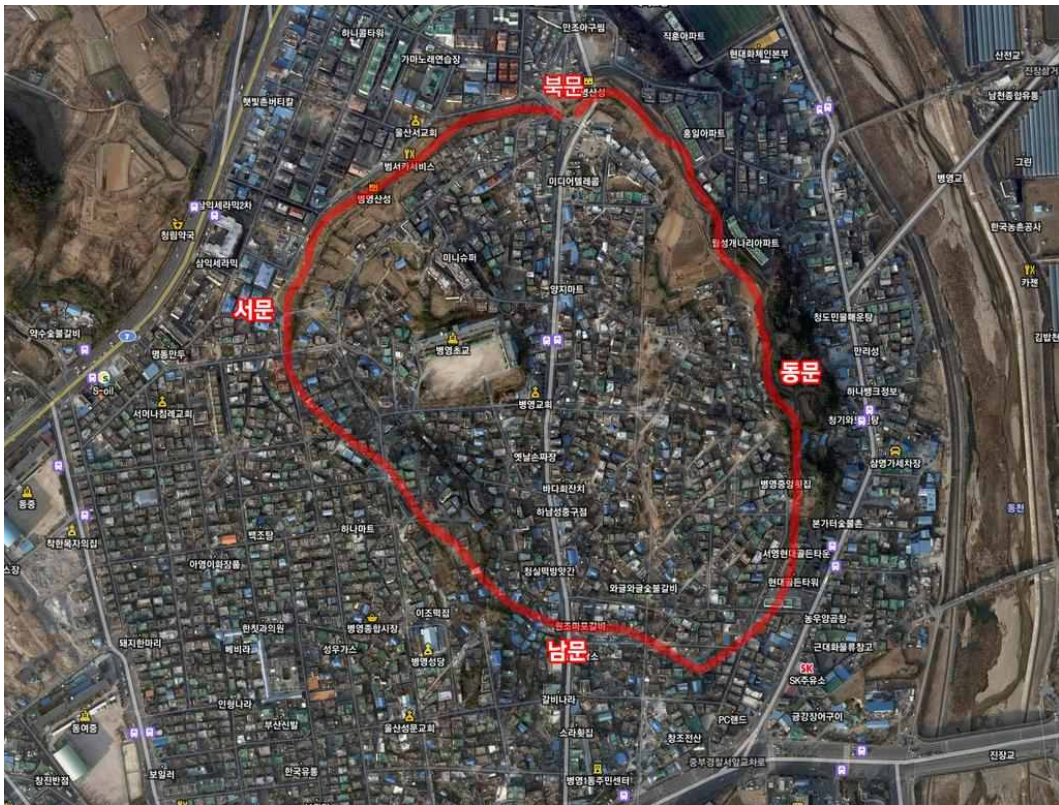
병영성이 들어서게 된 ‘붉은 깃발 전설’은 풍수지리에 있어 길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늘이 정한 땅이기에 외적의 침략에 고을을 지키기 좋을 것이라는 당시 백성들의 바람도 녹아 있는 셈이다. 울산 향토사를 공부해온 김문술 선생님은 병영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⁷⁾

첫째, 지형의 경우, 말발굽 모양으로 이어져 있는 구릉 정상에 성벽과 북문, 동문, 서문이 자리 잡고, 주요 시설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골짜기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입지를 가진 성곽을 ‘포곡식(包谷式)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문인 남문은 골짜기 끝부분, 즉 가장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다.

7) 『울산저널』 “기박산성” (2018.09.19.)

둘째, 성이 바닷가에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처음 경주 토을마리(즉, 모화)에 있는 기박산성에서 지금의 병영성으로 경상좌병영이 옮겨올 때는 해군 기지인 수영도 겸할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병영성에서 가까운 반구동 포구에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까지 ‘전선소’가 있었는데, 고읍성에 병영이 있었을 때는 같은 장소나 다를 바 없었다.

셋째, 군사시설이 높은 산위에서 내려와 백성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고려와 조선의 시대적 차이점이다. 기박산성은 마우나오션 리조트 입구에 있다. 옮겨 온 곳은 ‘거마곡(巨馬谷)’으로 지금의 병영인데, 이 지명은 ‘큰 말골’ 즉, ‘큰 마을’이 된다. 남구 신정동에도 ‘거마’라는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남아 전한다.



병영성은 1987년 7월 18일에 대한민국 사적 제32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동문에서 북문을 거쳐서 서문까지, 병영 성당 부근의 서남치성이다. 동문지 남쪽의 옛 베름산 부분은 도시 개발로 헐려나갔고, 남문 터 주변은 성벽이 남아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난 2010년 병영성 복원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2017년 현재까지 동문지 부근에서 북문지, 서문지 구간이 발굴 조사를 거쳐서 정비되었고, 앞으로 동문과 서문 등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한다.⁸⁾

8) 한삼건, 「디지털울산문화대전」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 하마비

병영 초등학교 앞에는 지금도 하마비가 서 있다.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토포사이하개하마(討捕使以下皆下馬)”. 토포사 이하는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가란 뜻이다. 토포사(정3품)로 선을 그은 것은 병마절도사에 대한 예우의 뜻을 포함한 것이다.

원래 병영성의 남문 입구에 있었던 하마비는 성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병영초등학교 앞으로 옮겨졌다. 하마비와 관련해 하마평(下馬評)이란 말도 있다. 즉 말을 묶어놓고 기다리던 하인들이 서로의 상전을 폄평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도 개각이나 인사 이동 때 종종 사용된다.

병마절도사의 품계 종2품은 지방 관리로서는 가장 높은 것이었다. 아래 표에 나오듯 경상도관찰사와 좌병영절도사의 품계가 동일했다. 목사는 정3품이고 도호부사는 종3품이다. 울산읍성 동헌의 수장인 도호부사보다 병영의 절도사가 두 단계나 높은 품계였던 것이다.



품계	문관	무관	지방직	현대
정1품	영의정 좌의정	영사 도제조 대장		극무총리
	우의정 도제조			
종1품	좌찬성 우찬성 판사	판사		부총리
	제조			
정2품	지사 판서 좌참찬	지사 제조 도총관		장관 차관 본부장
	우참찬 대제학			
종2품	동지사 참판 상선	동지사 부총관	관찰사 부윤	차관보 중장
			병마절도사	
정3품	참의 직제학	첨지사 별장	목사 병마절제사	관리관 소장
종3품	집의 사간	대호군 부장	도호부사	이사관 극장 준장
			병마첨절제사	

이와 관련해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진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1425) 10월 18일의 ‘울산읍성의 관리와 백성은 새 성으로 옮기고, 절제사는 구읍성을 지키게 하다’라는 3번째 기사에 실린 부분을 살펴보자.⁹⁾

경상 감사가 좌도(左道) 절제사의 관문과 울산군(蔚山郡) 인민들의 등장(等狀)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병사(兵使)는 말하기를, '내상(內廂)의 새 성(城)이 이미 크게 수축되었으니 반드시 울산군을 합쳐 넣어야 하겠으며 그래야만 관리와 백성들을 보호해 지킬 수 있겠다. 더구나 본군의 군수 물자 창고도 이미 새 성안으로 옮겼는데 관리와 백성들은 <지금까지> 편히 살던 곳을 옮기기를 어려워해서 아직도 구성(舊城)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가 만약 뜻밖의 사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두 성을 수호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관리와 백성들을 새 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구읍(舊邑)의 성은 헐어버리어 관리와 백성들의 고향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을 끊게 하여야 한다.'고 하며 울산의 관리와 백성들은 말하기를, '만약 군(郡)이 내상(內廂)의 새 성으로 합하게 되면 수령과 이속(吏屬)들이 아침저녁으로 장군에게 문안해야 하며, 때없이 뵈손님을 접대하여야 하므로 일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 치다꺼

9)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의 장터 어제와 오늘』 59p (2010)

리하기에 곤란하였다.’ 하오니, 우도(右道)의 예에 의하여 절제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새 성에 있게 하고 군수는 구읍의 성에 있게 하여 예전대로 군(軍)과 민(民)을 나누어 다스리기에 편리하도록 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명하기를,

"병조에 내리어 의정부와 여러 조(曹)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라."
 하였더니, 의논하여 이르기를,

"울산 읍성에 거주하는 관리와 백성은 모두 새 성으로 옮겨 살게 하고 절제사는 군마(軍馬)를 거느리고 구읍성에서 지키다가, 만일 외적의 사변이 있게 되면 새 성으로 합해 들어가서 굳게 지키거나 혹은 군사를 출동하여 적을 추격하거나 하여 임기응변하는 것이 좋겠으니, 구읍성은 파절구자(把截口子)의 예와 같이 헐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8일 계미 3번째기사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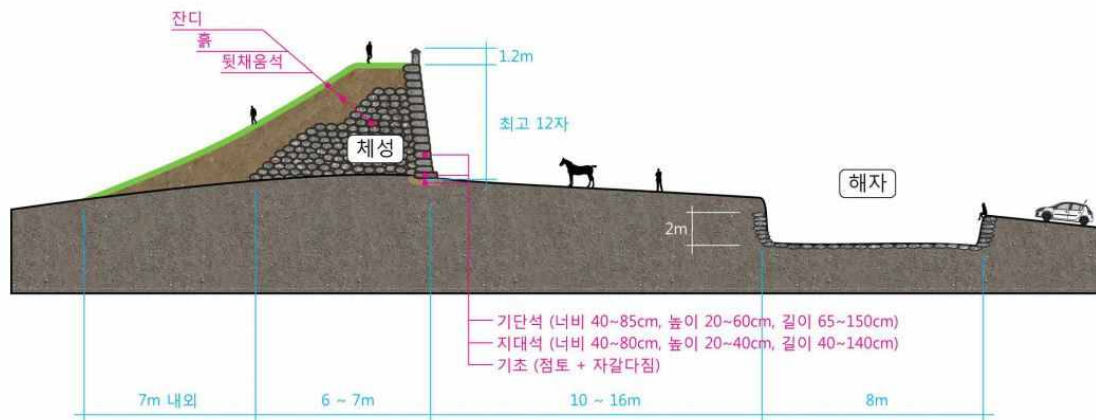
위에 성을 바꾼 장소는 고려때부터 있던 구읍성과 새로 지은 병영성 두 곳을 말한다. 이런 조치는 12년이 지난 세종 19년(1437년) 8월 11일에 원상복귀 시킨다. 아울러 경상좌도절제사와 울산부사의 겸임도 함께 폐지하게 된다. 해당 기사는 ‘울산을 군으로 복구시키다’란 제목으로 쓰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좌도 절제사가 울산 부사(蔚山府使)를 겸하게 하지 마시고, 울산을 군으로 복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절제사 이사검(李思儉)이 폐단을 말하여 겸임을 없앨 것을 청한 까닭이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8월 11일 무진 2번째기사¹¹⁾



1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편영인본」 2책 696p

1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편영인본」 4책 99p

□ 병영초등학교(옛 일신학교, 학성보통학교)



옛 병영의 관사가 있던 자리에 건립된 병영초등학교는 울산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래된 학교 중 하나다. 그 출발은 1906년 군부 주사를 지냈던 이재호가 설립한 사립 일신학교다. 비슷한 시기 나라 곳곳에서 사립학교가 만들어졌다. 국운의 위태로운 때를 넘어서려면 근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설립자 이재호의 장남 이종화는 4대 교장을 역임했고, 차남 이종필은 병영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일신학교 졸업생 중에는 최현배, 한명조, 이영호 등 서울로 유학을 간 이도 있다. 외솔 최현배의 숙부 최익수는 일신학교의 마지막 교장을 지냈고 동생 최현구는 병영 만세운동에 적극 참가한 이 중 한 명이다. 색다른 유학생도 있는데 일제강점기 울산 갑부 중 한명으로 꼽히는 송태관이 병영출신이다. 그는 경상좌병영에서 병마우후(兵馬虞候)를 지낸 김홍조가 울산출신 청년들을 지원한 장학생에 포함된다.¹²⁾ 그는 3대 교장을 지냈는데 병영 주민들이 친일에 기운 송태관의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후 4대, 5대 이종화와 최익수가 민족계몽운동을 위해 노력했다.

일신학교처럼 민족계몽을 앞세운 사립학교가 늘어나자 일제는 대한제국을 압박해 1908년 8월 26일자로 사립학교령을 반포한다. 그리고 1910년 국권 강탈 이후엔 다양한 압박을 가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넘겨받거나 폐교시켰다. 일신학교는 1919년 만세운동이후 학성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꿔 공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해방 후까지 일본인 교장이 계속 부임했다. 학교 이름은 1939년 학성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학성공립국민학교, 1947년 병영국민학교, 1996년 병영초등학교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년 전 병영만세운동의 시작점이 옛 일신학교 운동장인 것도 흥미롭다. 일신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된 병영청년회 회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후배들과 축구경기를 할 것처럼 모여 감시망을 피했다. 가장 먼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했는데, 교사 송수환이 수업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두 뚫고 모였다. 만세여거의 시작 신호는 이문조가 축구공을 높이 올려 차는 것이었다.

전국 3·1 만세운동의 시간과 장소는 대부분 장날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였던 것과

12) 김유신,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의 사회변동과 지역정체성」 (2013)

달리 병영은 일신학교에서 첫 만세행렬을 꾸리게 된 점이 독특하다. 더구나 병영 장날은 3. 8일 인데, 경찰이 언양 만세운동 직후 장을 미리 폐쇄해서 하루 늦춘 4월 4일에 벌어졌다.

병영만세운동이 유혈사태와 대규모 검거로 끝났지만 병영의 항일운동이 그때 멈춘 것은 절대 아니다. 1920~30년대 병영지역 항일운동을 주도한 청년들 대부분이 일신학교 졸업생들이었다. 그리고 학성공립보통학교로 바뀐 후 1926년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 일어난 6.10만세운동에 학생들이 동참했다. 학교에 휴학을 요구했지만 교장과 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300여명의 학생이 이를 비난하며 3일 동안 자체 동맹휴업을 한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세운동과 그 뒤의 병영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QR코드 현판을 제작해 병영초등학교 교문 기둥에 부착했다.



▲ 병영청년회 1주년 기념총회

□ 병영 만세운동

1919년 3월 1일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멈추지 않고 지역으로 퍼져갔다. 병영은 서울에서 유학했던 한명조, 이영호가 비밀리에 조직돼 운영 중이던 병영청년회로 3·1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됐다. 비밀결사로 활동했던 병영청년회는 만세운동 소식을 접한 뒤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 작업을 거쳤다.

병영청년회의 핵심 간부는 1906년 사립 일신학교가 설립된 이후 배출한 졸업생이 많았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을 살펴보면 양석룡, 이현우, 이종욱, 이종근, 이문조, 김장수, 박영하 등이 다. 양석룡, 백봉근, 윤학이를 빼면 나이가 25세 이하였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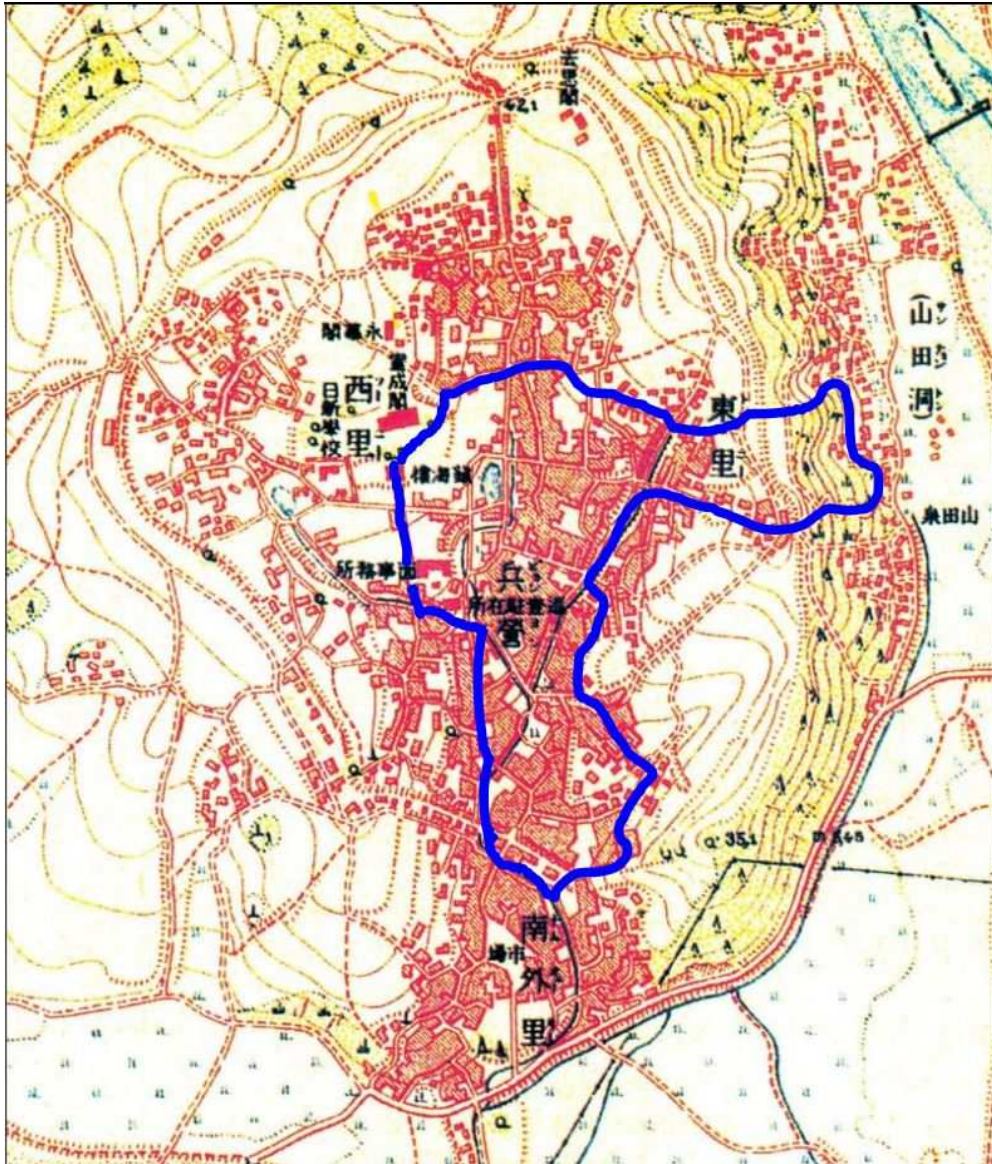


▲병영 삼일사 사당에 걸려있는 결사진충보국 태극기

4월 3일 병영청년회 간부 박영하의 집에 모여 “결사진충보국(決死盡忠報國)”이라 각서를 쓰면서 항일에 대한 뜨거운 결의를 다졌다. 당시 청년회장이었던 이현우는 참석한 회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쪽지를 돌렸고, 읽고 난 후 불에 태웠다고 한다.

1919년 4월 4일(금) 오전 9시 병영청년회 회원들은 일신학교 운동장에 축구 경기를 가장하여 모여 있다가 차올려진 축구공을 신호로 만세를 외쳤다. 학교 교문을 벗어나 거리 행진에 들어갔을 때 시위대의 처음 숫자는 약 100여명이었다.

만세 소리가 병영의 중심 길을 메우자 일신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합세했다. 곧 행진의 인파가 온 거리를 가득 메웠고,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며 면사무소와 병영주재소 앞을 지나 동리, 남외리, 산전리를 2차례 행진하였다.



▲ 1917년의 병영 지적도, 파라색 선은 1919년 병영만세운동 행진경로 추측

병영주재소의 순사들은 초기 시위대를 막지 못했지만 울산읍내에서 출동한 경찰과 헌병수비대가 도착하자 시위군중을 향해 공포를 쏘며 겁박했다. 그러자 이내 시위군중과 일제 경찰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차례의 큰 충돌이 벌어진 후 무력 진압이 자행 돼 양석룡, 이종욱, 이종룡 등 1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첫 날의 시위는 강제 해산되었다.

4월 4일 1차 시위 때 체포를 피한 병영청년회 간부들은 그날 밤 김세진의 집에 모여서 바로 2차 시위를 정한 뒤 다시 태극기와 깃발을 만들었다. 이종근, 이종필, 이문조, 문성호 등은 4월 5일 오후 3시경 일신학교 부근에서 만세를 부르며 전날 체포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병영주재소를 향해 행진하였다.

전날에 이어 병영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시위 대열에 합세했는데 그 숫자는 더 크게 늘어

수천 명(1917년 인구조사 당시 병영의 조선인은 1,047호 5,008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4월 5일 2차 시위 때는 일본 경찰의 무력 탄압으로 김응룡, 문성호, 엄준, 주사문이 현장에서 순국했다. 앞에 섰던 송근찬, 김규식, 김두갑 등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뒤 시위대는 강제 해산되었다. 일제 측이 남긴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4월 4일 오전 11시 40분경 이종근(李鍾根) 등이 수모자(首謀者)가 되어 하상면 일진(日進)학교(주:일신학교 日新學校의 오기) 생도 및 동지청년회원(同地靑年會員) 약 백 명이 병영시장에 집합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각자 구한국기(舊韓國旗)를 진하고 조선독립만세 행진을 개시하여 병영읍내로 시위운동을 감행했고 울산경찰서에서는 서장 이하 8명, 수비대 5명이 현장에 급행하고 구한국기 24본을 압수하는 동시에 수모자 14명을 체포 해산했지만, 다음날 5일 오후 3시에 이르러서 동지청년회원을 중심으로 군집한 약 800명은 사립일신학교 교정(校庭)에 집합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위의 동지주재소(同地駐在所)로 쇄도하고 불온한 형세가 있자 본서(本署)로부터 경찰관 8명 수비대 5명이 출동하고 새로이 수모자 9명을 체포하여 본서에 압송하고 군집(群集)은 그것을 탈환하여 다시 살기(殺氣)를 일으켜 제지하려는 병사의 총기 및 순사의 대도(帶刀)를 탈취하거나 또는 투석하는 등에 대한 방어의 방법으로 수비대원이 발포해서 즉사 2명 부상자 5명이 발생했고 주된 관계자 40명을 검거·진압했다.”¹³⁾

울산 경찰서에 수감된 병영 3.1운동 주동자 22명은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2년, 태형 90대를 선고받았다. 이에 이현우, 이종욱, 양석룡, 이문조, 최현구는 1심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울산의 3·1운동 중에서, 병영지역이 이 틀에 걸쳐 다수의 희생자를 내며 전개됐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다음은 그 당시 매일신보의 한 구절이다.

“호계역을 출발하여 병영이란 곳에 도착하니 때는 26일 오전 11시경이었다. 이곳은 구한국시대의 병영으로 유명한 군벌가들이 아직까지 있다 한다. 옛날의 군벌가 혹은 그 자손들이 당지에 거주하는 관계상 사상계는 울산군내에서 제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정 8년도 즉 3.1운동 당시에도 울산군 전반을 통하여 오직 병영에서만 운동이 열렬히 일어나서 사상자까지 연출한 지방인 동시에 청년들의 의지가 강건하여 단결력이 혁고하며……면사무소 혹은 경관주재소 등이 도저히 민간 측 청년계의 규모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926. 12. 6 (월) 매일신보」

병영은 외세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500여 년 동안이나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이 강했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병영성이라는 공간이 만들어낸 지역 공동체 의식도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있다. 병영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렇다 할 유력가문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대신 병영 해산 후 세운 일신학교 졸업생이 청년회를 결성해 젊은 의기를 환히 드러냈다. 병영의거와 관련된 순국자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3) 경상남도경찰부(慶尙南道警察部), 『고등경찰관계적록(高等警察關係摘錄)』, 193

순국자

성명	당시 연령	비고	출신지
엄준	34세	순국	울산군 하상면 남외리
문성초	32세	순국	울산군 하상면 서리
주사문	29세	순국	울산군 하상면 남외리
김응룡	19세	순국	울산군 하상면 남외리

병영만세운동관련 형고자 명단

성명	당시연령	본적지	형명	형기	판결기관	행형기관
이현우	31	하상면 서리	보안법 위반	징역 2년	대구고법	대구형무소
이종욱	23	하상면 서리		징역 2년	대구고법	대구형무소
이종근	23	하상면남외리		징역 2년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이문조	20	하상면 동리		징역 2년	대구고법	대구형무소
이종필	21	하상면 동리		징역 1년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최현구	23	하상면 서리		징역 1년 6월	대구고법	대구형무소
황정달	21	하상면 남외리		징역 1년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김장수	21	하상면 동리		징역 1년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양석룡	26	하상면 연암리		징역 8월	대구고법	대구형무소
이종룡	20	하상면 남외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박규환	23	하상면 서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대구형무소
김재수	19	하상면 동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권석운	21	하상면 남외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이홍준	25	농소면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최금석	22	하상면 남외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서무출	19	하상면 서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최현표	18	하상면 동리		징역 6월	부산지법 울산지청	부산형무소
백봉근	27	하상면 남외리		태형90도		
최원득	19	하상면 서리		태형90도		
김송근	21	하상면 동리		태형90도		
이근복	22	하상면 서리		태형90도		
윤학이	33	하상면 서리		태형90도		

*양석룡(1892~1943)은 3·1운동으로 징역 8월(보안법 위반, 이하 동일), 25년 4월 병영청년회 상임위원, 26년 4월 병영청년회 집행위원장

*이현우(1894 ~ 1969)는 3·1운동 병영교회 교인으로 징역 2년, 23년 12월 동아일보병영분국 고문

*이종옥(1896 ~ 1965)은 사립 일신학교졸업, 15년 서리 농업학교 설립, 3·1운동으로 징역 2년, 병청 활동, 두동 사립강습소와 사립 남창학교 교원, 해방 후 온양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온양면장, 미군정에 의해 투옥, 3·1동지회 조직

*이종근(1896 ~ 1967)은 3·1운동으로 징역 2년, 만주 망명 실패, 21년 기미계 조직, 44년 울산경찰서에 20일 구금

*이문조(1902 ~ 1971)는 3·1운동 당시 병영교회 교인으로 징역 2년, 25년 4월 병청 문예부장, 26년 4월 병청 집행위원, 29년 8월 신간울산지회 집행위원, 30년 3월 신간울산지회 조사부원

*김장수(1897 ~ 1963)는 3·1운동으로 징역 1년, 23년 12월 동아일보 병영분국 고문, 25년 4월 병청 상임위원

그 후 수형자 22명은 감옥에서 나온 후 기미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을 다시금 결의하고 해마다 네 분의 순국열사들의 추모제를 거행했다.

□ 병영만세운동 의거의 뒷이야기

○ 순국한 4명 중 엄준은 유족이 없어 정국명, 차인선, 윤학이, 김규석 등 동지들의 손으로 황방산에 안장시켰고, 3명은 가족들과 지방민들의 오열 속에 각기 안장되었다.

○ 구속된 22명 청년은 대구 감옥과 부산 형무소에서 각각 옥고를 치렀으며, 그 후 출감한 의사들이 일치단결하여 배일 투쟁을 다시 결의했다. 이듬해부터 순국한 네 분의 위패를 무룡산 옥천암에 봉안하고 매년 4월 6일 비밀리에 추모제를 거행하다가 1955년에 3·1사 봉제회를 조직했다. 당시 면장 신복교와 유지들이 협력하여 영모각을 개수 삼일사라 명명하고 네 분의 위패를 봉안, 병영 3·1사 봉제회 주재하에 매년 4월 6일에 순국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거시적으로 봉제하고 있다.

○ 병영 3·1 운동에서 특기할 것은 1개월 이상의 거사 준비에도 비밀이 폭로되지 않고, 거사 후에도 굳게 지켰다. 체포돼 수감됐던 이들 외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한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울산경찰서 유치장에 구류 중인 병영 만세 의거자들의 뜻에 감명을 받은 이들이 많았다. 그 중 의기 향심(이국남). 부용(이여사)은 매일 심야에 일본군의 눈을 피하여 음식을 유치장에 날라와서 의사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투지를 격려했다고 한다.

○ 그 후 5월 2일 울산 장생포에서 배편으로 부산 형무소까지 압송되어 가는 의사들을 전송하

기 위하여 말을 타고 선창까지 달려온 이들이 많았다. 막 떠나려는 배에 뛰어올라 술잔을 권하면서 격려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통에 배는 예정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떠났다. 분개와 눈물로써 발버둥치는 인파는 울산 장생포간의 가두를 장사진으로 메웠다고 한다.

○ 그 당시 순사로 있던 병영 출신 김영하는 의기 향심과 부용의 유치장 출입을 묵인하여 주었다. 압송 책임자로서 부산형무소에 들어가기 전, 식사시간 중에 의사들로부터 탈주 요구를 받자 김영하는 쾌히 승낙하고 '나는 독립운동을 못했을망정 너희들은 놓아 줄 수는 있다'고 하면서 탈주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오히려 그 의협심과 그의 가족들에게 미칠 화를 염려하여 탈주를 단념하였다고 한다.

○ 독립만세 운동에는 직접 가담하지 아니했으나, 이들을 몰래 지원한 유지 이종화, 이종순, 최진해, 김원일, 이인하, 윤민석, 정종화, 최현필 등은 의사들이 울산 유치장에 구속 중 사식을 비롯한 모든 비용과 편의를 제공하였고, 특히 이종화는 대구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투사들의 미결 4개월간의 사식과 제반 비용을 전달하였다.



▲ 병영삼일사 사당에 모셔진 만세열사와 의사 영정과 위패

□ 삼일사와 3·1운동 기념조형물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초등학교 옆에는 적막함이 느껴지는 사당이 하나 있다. 삼일사(三一祠)라는 제목이 심상치 않고 문에 걸린 현판에는 “만세문”이라고 적혀있다. 이곳은 병영지역에서 일어났던 3·1운동 당시 순국한 김응룡, 문성호, 엄준, 주사문 4명의 열사와 옥고를 치른 22명 의사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삼일사는 1955년 병마절도사영의 부속 건물 중 하나를 영모각으로 개수해 사용하다 이후 삼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1971년 별림산(베름산)으로 옮겼다가 1987년 현 위치로 새롭게 조성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삼일사 전체 면적은 483평이며 경내에는 사당이 있고 문밖 한 편에 삼일충혼비가 세워져 있는데 충혼비는 병영 출신 한글학자 최현배가 직접 글을 지었다. 삼일사는 병영청년회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삼일사봉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병영초등학교에 들어서면 학교 본관 건물 앞에 독특한 모양의 조각상이 세워져있다. 병영초 총동창회가 1997년에 건립한 높이 2.8m의 병영 3.1독립운동 기념조형물이다. 이 조형물은 전체적으로 주위를 밝히는 햇불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세를 외치는 26명 애국지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위쪽 부분 가운데에 놓여있는 둥근 공은 병영 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축구공을 상징한다. 기념물 주위로 1m 높이의 태극 4괘가 배치돼 있다. 태극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또한 병영의 치열했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해 4월 초에 병영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열고 있다. 예전에는 강북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모두 삼일사에 참배를 왔었다고 한다. 지금은 병영초등학교가 고향년을 중심으로 현장학습처럼 참배를 한다.



□ 병영 남은 이야기들

○ 산전샘미



산전(山田)은 『울산읍지(蔚山邑誌)』[울산]에 내상면 산주리(山酒里)로 기록하고 있다. 1914년 이후로 산전으로 고쳐 부르게 된 지명이다. ‘산주’는 산마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전샘은 자연수가 솟아오른 샘으로 병영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물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따뜻하였으며 퐁퐁 언 걸레가 금방 녹을 만큼 따뜻해 아낙네들의 빨래터로도 유명했다. 1967년에 울산시에서 산전샘 부근의 지하수를 뽑아 병영에 상수도를 시설한 뒤로 수원이 고갈되었다.

『울산읍지』에는 “한 시간에 솟는 물은 80섬이고, 하루에 퍼낼 수 있는 양은 1,820섬이다. 능히 1,000호가 사용한들 줄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물어도 수량이 줄거나 불어나는 일이 없어 샘물이 흐르는 아래 논에서는 이 물을 받아 미나리를 키우기도 하였다. 1985년 이후로 폐쇄되었다가 주민들이 흙으로 묻고 보존해 오던 것을 2002년 복원하여 병영산전샘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¹⁴⁾

14) 디지털울산문화대전 ‘산전샘이’

○ 병영성 발굴과 복원사업 이전 모습 (1994년, 울산역사교사모임촬영)



경상좌병영이 해체되고 난 이후부터 성벽은 훼손되기 시작해서 1930~40년대가 되면 성벽이 있었다는 짐작만 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 병영과 외부 지역을 구분해주는 물리적 경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2005년 2월 25일 김태규 구술 녹취록.) ; 1970년대 후반~1980년대가 되면 성벽 근처에도 주거지가 급증하고 성벽의 훼손은 이전에 비해 더 진행된 상태였다. 하지만 성 내부와 외부에 대한 구분은 여전했다.

장티(장현동), 산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장티사람, 산전사람이라 지칭하기도 했지만 병영사람이라 칭하기도 했다. 반면 병영 내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장현동과 산전 거주자들을 장티촌놈, 산전촌놈 등으로 부르며 여전히 성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있었다. 1930~40년대에 비해 더 훼손된 1970~80년대까지 도 성 내부와 외부를 구분했던 것은 이전부터 병영에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2012년 11월 7일 왕무연 구술 인터뷰).¹⁵⁾

15) 김유신,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의 사회변동과 지역정체성」 (2013)

○ 학성지

『학성지(鶴城誌)』(1749)에는 고려 초에 흥례부(興禮府) 치소(治所)가 신학성이라고 하였으니, 신학성은 박윤웅 이래 고려시대 울산의 읍치(邑治)였다고 설명한다. 박윤웅은 본래 신라 말에 신학성장군이라 불리는 울산의 호족이었다. 그는 계변성에 머물면서 하곡현(河曲縣)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성의 신두산에 학 두 마리가 금으로 된 신상을 물고 날아와 올랐기 때문에 계변성을 신학성이라 부르고, 여기서 학성이라는 울산의 별호가 유래했다고 말한다.

학성은 신라시대의 수도 경주에서 남동해로 나가는 최단의 육로의 끝에 해당한다. 반대로 말하면 바다로 침입하는 외적이 최단 경로로 국가의 수도에 다다를 수 있는 입구가 된다. 따라서 경계를 위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계변성(戒邊城)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수도 경주를 경계하는 변방 지역이지만 매우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이다.

○ 계지변과 계변성

울산향토사연구회를 이끌었던 이유수(1926~2007)는 『울산향토사연구논총』에서 계변성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개지변(皆知邊)이란 변방의 신산(神山)이란 뜻을 가진 것인데 국어로 된 이 개지변을 한식(漢式)으로 고친 것이 계변성(戒邊城)이기도 하다. 이는 임관군(臨關郡)에 딸린 하곡현(河曲縣) 안에서 성장하였던 한 성읍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지변을 고쳐 부른 것이 학성(鶴城)이며 이 학성의 유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¹⁶⁾라는 부분이다. 개지변이 변방의 신산이라고 했다. 이 부분을 이유수가 구술한 내용도 있다.

“신라 말 때의 얘깁니다. 얘긴데, 울산지방에는 특히 학성동(鶴城洞) 일대는 신라 말엽에 개지변(皆知邊)이라고 했다가 뒤에 개변성(戒邊城)이라고 고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라말 때 천신(天神)이 학을 타고 개변성 신두산(神頭山)에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의 수록(壽祿)을 관장을 했다, 이래서 그 후에 개변 천신이라고 불러 내려왔는데, 이 개변 천신은 울산 고을의 서낭신이 돼서 그 이조말엽까지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쪽 받들어 내라온 울산 사람들의 하나 정신적인 지주가 돼 왔습니다.”¹⁷⁾

이유수가 개변과 계변을 같은 곳의 다른 이름이라 설명하는 것에 비해 조류학자인 김성수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개지변은 자연생태 환경적 이름이고, 계변성은 군사적 방어 목적에서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계변은 어느 곳을 방어하던 변방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¹⁸⁾라는 것이다. 김성수는 개지변의 개지가 ‘버들개지’처럼 습지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풀이한다.

16) 이유수, 『울산향토사연구논총』 1996

17) 정상박, 김현수 『한국구비문학대계』 「울산 계변 천신(戒邊 天神)」 2002

18) 2018.04.15 『울산제일일보』 “개지변(皆知邊)과 계변성(戒邊城)의 변별성”

울산광역시사(2002)도 개지변을 ‘강변이나 천변을 뜻하는 갯가’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태화강을 가리킨다고 적고 있다.¹⁹⁾ 그리고 현재 학성공원이 있는 자리에 울산왜성 이전에 ‘신학성, 계변성, 증성’이 모두 같은 곳이라고 정리해버렸다. 다시 말해 ‘도산성은 임진왜란시에 축조된 왜성으로서 계변성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 두 성곽의 위치는 같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주장의 근거로 왜성이 원래 있던 성지에 축조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 반구동 토성 발굴과 계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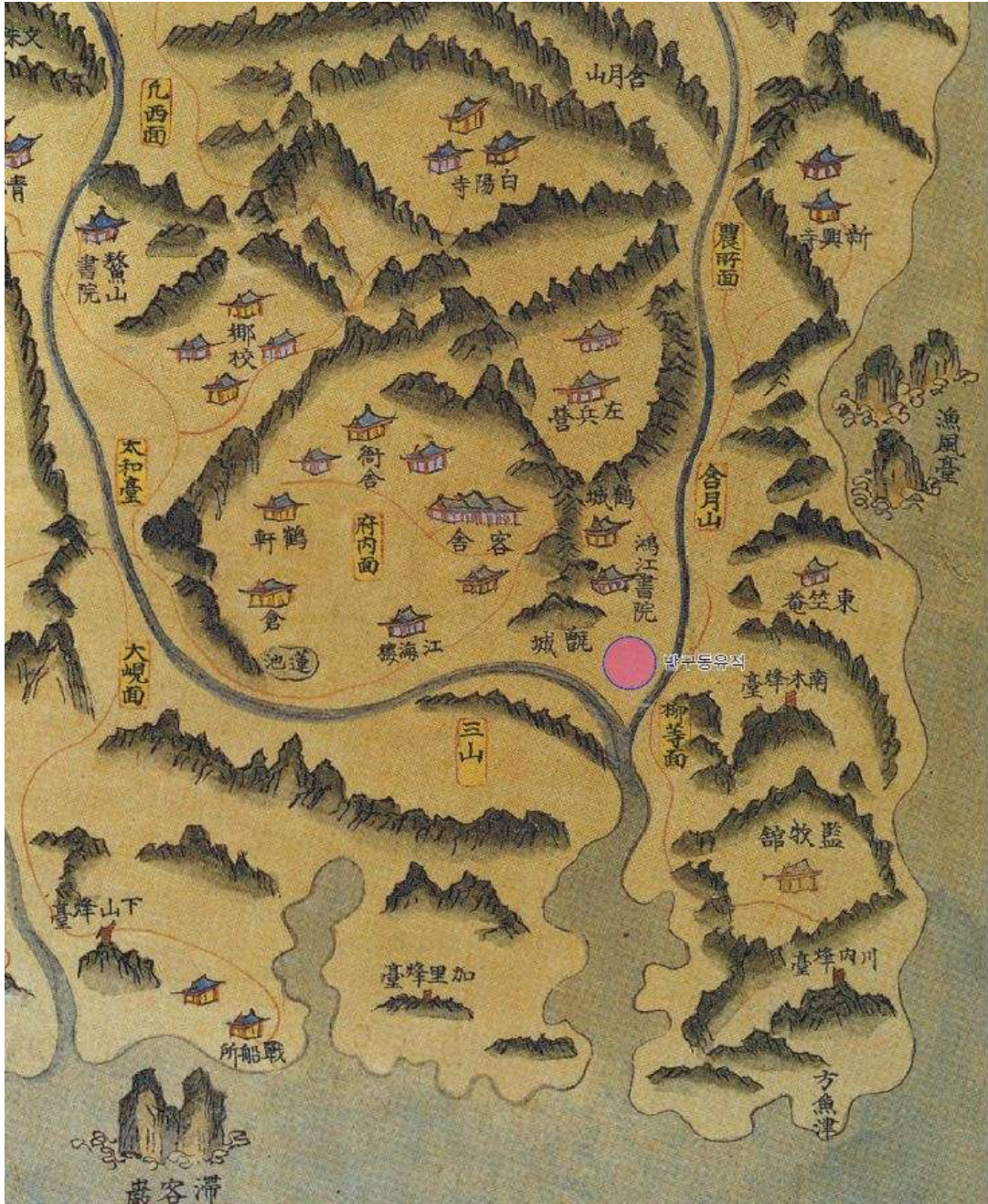
▲ 위에서 내려다 본 반구동유적 발굴조사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반구동 토성의 위치는 1991년 반구동 토성을 발굴 조사한 동아대 박물관 보고서(1992)를 통해 확인됐다. 바로 반구동 동천강변에 서 있는 ‘한라그랜드 아파트’ 자리와 ‘강변 이편한세상’ 아파트 단지에 걸쳐 있다. 동아대 박물관의 보고서(1992)를 보면, 유적은 “최소 7세기경에 <죽육사(竹六寺)>라는 사찰이 축조돼 통일신라 후기 어느 단계까지 계속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폐찰됐고, 그 뒤 일시 퇴적장으로 변했다가 다시 신라말기나 고려 초기에 그 위에 토성이 축조돼 고려 전기까지 사용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는 경주 황룡사와 분황사 정도에서 발견되던 고신라식 기와가 나온 것에 주목했고, 6~7세기경 신라 왕경에서나 볼 수 있는 권위있는 건축물이 서 있었다는 뜻이다.

<반구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로 ‘목책’과 ‘토성’을 비롯해 6세기의 대형 건물터가 드러났다. 목책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보는데, 조사된 전체 길이는 220m 정도지만 조사구역 밖 지하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목책은 안과 밖 2열로 돼 매우 견고하고 보존상태가 좋았다. 여기에 지름 70cm정도의 대형 나무 기둥 4개씩이 박힌 망루 유적 4곳도 목책에 걸쳐진 모습으로 나왔다.

19) <울산광역시사> 고려 387p

2006년부터 시작된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의 조사에서는 목책과 중첩돼 조성 시기가 고려 초로 추정되는 토성이 계변성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인 한삼건도 해당지역에 <계변성>이 있었다고 주장²⁰⁾한 바 있다.



▲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고지도(울산 부지도 속종~영조)

20) 2006년 12월에 나온 '울주연구' 3호 <계변성 위치에 대한 기초적 고찰>

○ ‘학생공원’이란 이름이 붙여지면서

학생동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두개의 산. 원래는 학성과 도산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이름의 혼동이 생겼다. 그 이유는 원래의 학성대신 정유재란 때 왜군이 축성한 울산왜성(도산성) 자리가 학생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때문이다.

학생공원에 있던 성은 원래 증성(甑城) 또는 도산성이라 불렸다. 정유재란 때 왜군이 후퇴하면서 왜성의 자리를 모두 불태우고 떠난 뒤로는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는데, 1913년 추전 김홍조(金弘祚 1868~1922)의 개인 소유지가 됐다. 김홍조는 23,140.6m²(7,000여평)을 사들여 흑송, 벃나무, 매화나무 등을 심고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김홍조는 공원을 조성한 후 당시 울산면에 기증했는데 울산 근대에 조성된 첫 공원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학생공원은 일본인들이 성지로 취급했다. 일본 학생들이 조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때 들러 지나가는 곳으로 경로에 넣을 정도였다. 정유재란 때 조명연합군의 공세에도 끝까지 버텨 낸 후 성공적으로 퇴각한 왜군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퍼트렸기 때문이다.

그때 과거 학성의 자리에 정유재란 때 왜군이 도산성(島山城)을 새로 쌓았다는 설로 공식화했다.

이것은 1935년의 『울산읍지』에 실린 후 2002년의 『울산광역시사』까지 답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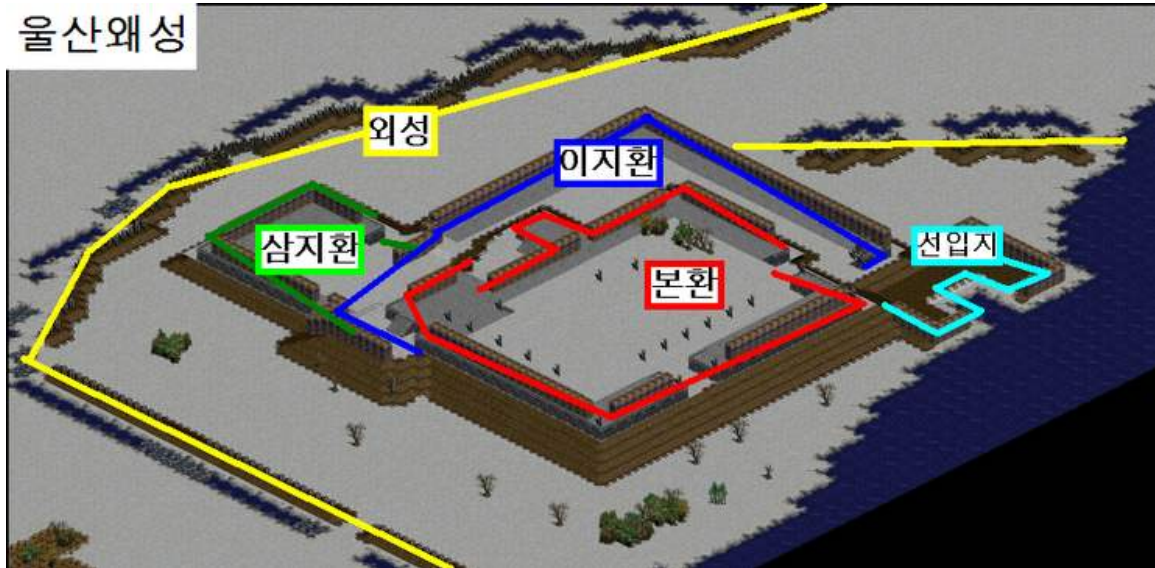
지금은 연구가 더해지면서 이것이 역사를 왜곡한 기술이라는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 학성(신학성)과 증성(울산왜성)과는 별개며, 원래의 학성이 '학성공원의 산'이 아니라 마주보는 곳의 총의사, 구강서원, 울산MBC가 있는 곳으로 제 이름을 찾은 셈이다. 해방 후 60년이 다 된 때에 되돌린 것이다.

□ 학성에서 울산왜성으로



울산왜성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에 의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3년 1월 21일에는 울산학성(蔚山鶴城)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9호로 지정되었다. 199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일제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등급조정이 이뤄졌다. 이 때 다른 왜성들과 함께 국가사적에서 해제되었다. 이후 1997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된다. 이때 공식명칭도 울산왜성으로 고쳤다.

울산왜성



성벽이 산 정상부를 3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일본의 성곽 형태를 가진다. 산 정상과 강가의 해발 45m 지점에 동서로 100m, 남북으로 60m 정도의 본환(혼마루)를 두고, 1차 성벽을 둘렀다. 본환 북쪽의 해발 35m 지점에 동서로 100m, 남북으로 40m 정도의 이지환(니노마루)를 두어, 2차 성벽을 둘렀다.

3차 성벽이 두르고 있는 삼지환(산노마루)는 혼마루 북서쪽으로 해발 2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서로 40m, 남북으로 100m 정도의 크기였다. 성벽의 높이는 10~15m였으며, 세 성벽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1,300m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 성의 상징처럼 생각하는 천수각은 원래 만들지 않았다.

성벽은 산의 경사에 의지하여 외부를 큰 돌로 쌓고 내부를 적심석(積心石)으로 가득 채우는 산탁(山托)형식을 취하고 있다. 외벽은 일본의 성벽과 같이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며, 다듬어진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반듯하게 축조되었다.

성벽의 내부 적심석은 다듬지 않은 자연의 잡석을 이용하였다. 이때 성벽에 가까운 적심석은 등석원(登石垣)의 길이대로 열을 맞추어 계단 형태로 쌓았기 때문에, 외벽이 무너져도 내부 적심석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 전기의 평지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축성방식으로, 왜성의 건조에 일본의 축성기술은 물론 조선의 축성기술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성에는 12개의 성로(城櫓)가 있어 망루의 역할을 하였다. 남쪽을 제외한 3면의 성벽 아래에는 흙벽을 쌓고 목책을 둘렀으며, 여기에 철포를 설치하여 방어선으로 삼았다.

○ 울산왜성 전투



1592년 임진왜란²¹⁾ 이후 왜는 한 차례 후퇴 후 다시 재침을 한다. 이때가 1597년 정유년이라 정유재란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1597년 8월 도요토미 정권의 왜군이 정전회담 결렬을 들어 재차 조선을 침공했다. 그 뒤 1598년 12월, 도요토미 사후까지 전쟁은 지속됐다.

재침 이후 전면적인 총공세와 수륙 양공책을 펼치던 왜의 계획은 이순신에 의해 바다에서 좌절된다. 바로 유명한 명량대첩으로 1597년(선조 30) 음력 9월 16일(양력 10월 25일)이다. 그 뒤 육지에서는 조명연합군에 의해 다시 밀리기 시작한 왜군은 전면적으로 후퇴 국면으로 바뀐다. 이때 부터 새로 왜성을 쌓고 농성에 돌입했다. 왜군 지휘관들은 본국으로 철수를 바랬지만 본국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철수 불가와 재복상을 독촉하고 있어 물러갈 수 없었다.

왜군 상당수가 여전히 조선 남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조·명 연합군은 소탕을 통한 종전을 계획한다. 그때 최우선으로 꼽힌 곳이 울산왜성, 당시 도산성이었다.

21) 임진왜란(壬辰倭亂、朝鮮征伐)은 1592년(선조 25)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어 1598년(선조 31)까지 이어진 전쟁이다. 그중 2차 침입을 정유재란으로 따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이유는

첫째, 울산왜성이 일본의 조선 침략 본거지인 부산과 매우 가까웠다는 것이다. 부산을 소탕하려면 그 배후의 울산왜성부터 치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울산왜성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산을 통해 일본 증원군이 당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둘째, 도산성에 주둔하고 있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에 분노도 더해졌다. 왜군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는 경쟁적으로 조선을 침공했는데 그 중 고니시보다 가토가 보다 악명 높았다. 그리고 고니시는 대명 협상을 주도해 좀 더 유화적으로 비쳤다. 반대로 가토는 선조의 아들 임해군과 순화군을 포로로 잡았던 이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고니시가 옹거한 순천성과 가토가 옹거한 도산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최종적으로 도산성을 결정했다.

○ 첫 공세

음력 12월 23일, 조·명 연합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조·명 연합군은 왜성의 건너편 학성에 진지를 구축했다. 조선군은 권율, 정기룡, 김귀희, 장운익이 지휘했다. 그리고 명군 총대장은 양호였지만 왜성전투의 지휘관은 마귀, 이여매, 파새였다. 연합군은 먼저 울산왜성의 서북쪽으로 진군했고, 왜군은 성내로 퇴각했다. 그리고 공세가 시작된 후 인근 병영성과 언양성을 탈환했고 서생포왜성과 연결로를 끊었다. 이때부터 울산왜성은 조·명 연합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본격적인 공성전에서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군이 축성한 왜성에 대한 공성전이라 그 기능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성의 기능이 공략하기 어려운 입지로 구성돼 있었다. 예상 밖 왜성의 방어력에 고전한 조·명 연합군은 본성에 대한 공세를 일시 중지했다. 그 대신 화포 공격으로 왜군을 괴롭혔고 성 주변의 우물을 묻고 태화강의 물줄기로 향하는 곳을 봉쇄하는 고사작전으로 변경한다.

○ 왜군의 약점

명군은 3만6천명, 조선군은 1만1천명이었다. 왜군은 성내 주둔군이 1만 6천이고 각지에서 달려온 왜의 구원군이 1만 3천이었다. 군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성의 입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가토와 왜군에게 악조건은 왜성이 급하게 완공돼 성 안에 군수 물자의 비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왜군은 성 안에 먹을 식량과 물이 너무나 부족했다. 특히 우물이 성내에 단 한개도 없었다.

결국 왜군은 굶주림과 갈증에 말을 죽여 말고기와 피를 먹고 나중엔 흙담과 나무를 끓이고, 오줌까지 먹었다고 한다. 때문에 대치전은 식수를 중심에 놓은 전투로 이어졌다. 왜군은 남쪽으로 맞닿아있는 태화강으로 식수 조달을 위해 나섰고, 조·명 연합군은 주둔과 매복으로 이를 막았다. 결국 왜군은 농성전의 핵심인 조총수에 한정하여 하루에 생쌀 한 홑을 지급했다. 그나마 물이 없어서 생쌀을 먹었다.

○ 2차 공세와 왜의 구원군

한편, 조·명 연합군은 포위망 유지와는 별개로 공세를 강화했다. 가까운 일본군이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합군은 도산성 외성을 함락시키며 가토군을 몰아붙였는데, 왜군은 좁은 내성에 웅크려 최후의 결사 항전을 준비했다.

왜의 구원군은 먼저 서생포에서 출발했는데, 이 병력은 연합군이 훌륭하게 격퇴했다. 하지만 순천 등 다른 지역의 왜군들이 울산왜성의 상황을 놓아두지 않았다. 실제로 조명연합군의 화력이 울산왜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왜성의 왜장들이 전황을 파악한 후 가토를 구원하는 게 최선이자 국면전환이 된다고 판단했다.



나베시마 나오시게를 필두로, 모리 카츠노부, 아사노 나가마사와 요시나가 부자, 다치바나 무네시게, 하치스카 이에마사등이 울산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순천의 고니시 유키나가까지 출병해 태화강 서쪽부터 대치를 시작했다. 왜군의 구원군 숫자도 6만에 이르러 조명연합군의 숫자와 맞먹거나 상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울산왜성에 대한 몇 번의 공방전 이후 연합군 지휘부는 공성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정한다. 12일간에 걸친 전투는 최종적으로 왜군의 승리로 끝난다.

사람을 시켜 중국 장수가 주둔한 곳을 바라보게 하였더니, (중략) 그제서야 비로소 중국 장수가 군대를 후퇴시키면서 먼저 보병을 내보내고 스스로 기병을 거느리고 뒤를 막으면서 후퇴한 것을 알았습니다. 전탄을 지키던 절강(浙江)의 보병 기병도 장수가 이미 후퇴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여 도망치자, 산위에 있던 적들이 줄을 지어 내려와 한꺼번에 시살하였는데 보병 중에 살아서 돌아온 자가 많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고 기마병으로서 죽음을 당한 자도 그 얼마인지 모르며 혹은 갑옷과 투구를 내버리고 맨몸으로 탈출하기도 하였는데 아군의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당당했던 대세가 순식간에 꺾이고 다 죽어가던 적이 도리어 흉독한 기세를 멋대로 부렸으니 진실로 통곡할 일입니다. <선조실록>

퇴각하는 연합군과 추격하는 일본 구원군 사이에 교전의 기록은 양측이 엇갈린다. 조선과 명의 기록에서는 추격을 예상하고 퇴로에 복병을 설치, 추격군을 섬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일본의 기록은 무질서하게 패주하는 조·명 연합군을 무참히 도륙했다는 기록이 있다. 울산왜성만 보면 인명피해는 왜군이 훨씬 더 뼈아팠다. 가토 군이 500~1000명만 남은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부상자가 많아 실제 전투 가용 인원이 그정도라는 말이다.

결국 구원군이 다시 각지의 왜성으로 떠날 때 가토도 울산왜성의 수성을 포기하고 서생포로 퇴각한다. 하지만 1월 22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다시 울산왜성에 방어진을 꾸린다. 가토 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

○ 제2차 울산성 전투와 종전

1차 전투에 실패한 조명연합군은 병력을 경상좌도·경상우도·전라도에 배치하였다. 또 진린이 거느린 명의 수군을 보내 조선 수군과 협력하여 일본 수군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울산·사천·순천 지역의 일본군을 동시에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등 사로병진 작전을 계획하였다.

1598년 9월 11일에는 부총병 해생이 남하하여 울산성에 접근하여 1천명의 일본군을 격파하고 울산왜성 앞의 학성(鶴城山)을 재점령하였다. 한편 김응서가 지휘한 조선군은 동래 지역의 일본군을 물리치고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통로를 점령하는 등 울산왜성 공격을 재차 준비하였다.

조·명 연합군은 제1차 울산왜성전투의 교훈을 삼아 각지 일본 구원부대가 파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로로 군대를 나눠 남해안 일본군 진지들을 차례로 공략하기로 했다.

그런 전략에 따라 동로군 총병관 마귀가 경주에서 김응서의 조선군과 합류해 도합 4만 대군을 이끌고 울산왜성을 공격했다. 반대로 왜군역시 1차 전투 당시 군수물자의 부족을 극복하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게다가 나머지 방향의 연합군들이 차례로 패퇴하는 전황이 계속 전해왔다. 결국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퇴각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조명연합군의 제 1표적인 가토 기요마사는 도산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다른 왜장들은 자국으로 후퇴하지 못한다면 보다 안전한 성으로 옮기자고 성화를 부렸다고 한다.

왜군은 이후 종전까지 서생포왜성으로 자리를 바꿔 주둔했다. 그리고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한건 도요토미 사후의 일이었다.

○ 충의사



충의사(울산시 중구 학성동45-1번지)는 임진·정유재란 중 왜군을 무찌른 울산 의사들의 충의를 기려 그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하는 사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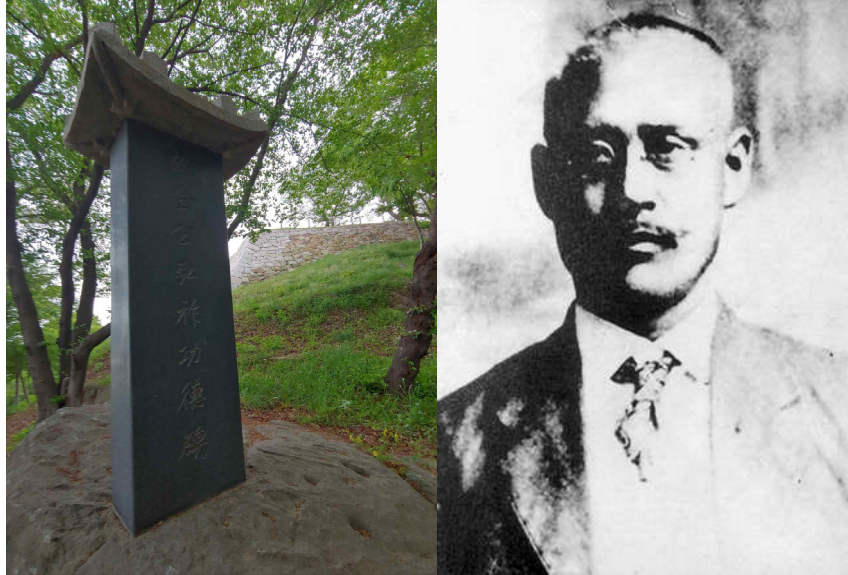
1992년 2월 울산지역 언론 및 방송계와 각 사회단체, 학계에서 뜻을 모아 의사들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자 가칭 임란공신충렬사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임란공신충렬사건립추진위원회는 충렬사(忠烈祠) 건립, 기념비 건립, 전기(傳記) 발간, 강연회 및 심포지엄 개최, 기타 관계 사업 및 행사 등을 계획하였다.

그 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면서 1993년 5월 울산임란공신숭모회를 조직하였다. 1994년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1997년 7월 건립에 착수하여 1998년 6월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2000년 6월 6,013㎡ 터에 사당[본전] 등 건물 11동과 홍살문을 완공하여 '충의사'라 이름하였다. 9월 28일 낙성식을 하고 선정된 의사들의 위패 봉안식을 열고, 2001년 1월 민간 단체인 울산임란공신숭모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충렬사'라 하였다가 '충의사'로 이름으로 바꾸고 현판을 달았다.

충의사는 현재 울산 임란 의사 242위와 이름 없이 산화한 의사들을 위해 무명 제공 신위(無名諸公神位)를 함께 봉안하여 매년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 좌병영우후에서 친일유력자로 변절한 김홍조

※ 여기에 옮긴 김홍조에 대한 글은 “일제강점기 金弘祚의 활동과 그 성격”²²⁾의 결론부입니다. 글쓴이는 박중훈 북구문화원 이사로 고헌 박상진의 후손으로 송정의 박상진 생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홍조(1868-1922)의 삶은 굴곡없는 삶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동향의 송태관처럼 자기 이익만 앞세우지 않았고, 동향의 후배 박상진처럼 전력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않았으며, 사회사업을 하더라도 李鍾萬(1886~?)처럼 이상주의자로 살지도 않았다. 큰 고난 없이 적당히 타협하며 베풀고 원만했던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다. 김홍조는 개화파다가 결국은 친일의 길을 걸었던 박영효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그의 영향으로 개화에 힘썼지만, 1907년 6월 귀국한 이후 중앙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지역유지로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업고 일제의 정책수행에 협조하며 타협하는 활동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그의 선행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

선각자로서 김홍조는 그의 개화활동에 잘 나타나 있다. 경남일보와 동아일보 등 언론활동도 있었지만, 특히 인재양성을 위한 그의 노력이 눈에 띈다. 1910년을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효와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남긴 기록이나 그의 사상에 대한 변변한 기록조차 없다. 이 때문에 그의 활동의 성격을 구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박영효로부터 받은 영향과 1910년대 그의 활동으로 볼 때 그가 추구했던 개화활동은 ‘선 독립, 후 실력양성’이 아닌 ‘선 실력양성, 후 독립’의 입장이었음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사망할 즈음에는 개량주의 노선에 접어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본의 신문물과 개화에 감명 받아 시작한 그의 한계이기도 했다.

22)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울산향토사 통합연구지제5호』 2017

김홍조의 교육활동에는 유학생지원과 학교설립·지원, 기타 활동이 있다. 1910년 대 그의 유학생 지원은 그 이전에 비해 지인이나 측근들과 연관되었고, 인문학 위주의 국내 유학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지원했던 인물 중 김우영, 이경신, 박관수, 송태관 등은 민족보다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삶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선 실력양성'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울산여자학교의 설립이나 여성이었던 김일조의 유학 등 그의 선각자다운 식견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1910년대에 그가 보인 경제활동은 이전보다 발달한 근대적인 형태다. 은행업, 제과, 양조업, 해산물판매업, 자동차운송업, 피혁, 철강, 요업 등 다양한 방면에 진출 해 사업의 다양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광업 잠업과 매립공사를 했다는 일부 주장은 추전 김홍조와 한자까지 똑같은 동명이인들의 활동이었다. 관계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그의 이런 경제활동의 결과 1915년 시정오년기념 물산공진회에서 임업부문 금패를 수상한 사실과 일본대농회에서 받은 표창 등은 일제가 추진한 식산흥업정책과 한 방향이었음을 말해 준다.

한편 활발했던 경제활동만큼이나 다양한 사회활동도 펼쳤다. 그중에서 그가 보인 선행이나 기부활동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협력과 저항이라는 틀에서 협력을 위장한 저항이라는 양심적 구제를 적용하기에는 그의 행위가 너무나 명확했었다. 또 자발적이었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이었기 때문이다. 1912년 빈민을 도운 선행을 제외한 기부활동은 권력과 서로 주고받기를 한 측면이 엇 보인다. 그 결과 김홍조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로부터 금패 1개, 은배 1개, 목배 4조, 표창 1회와 부상으로 시계 1개를 받았다.



일본 내각으로부터는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고 대정대례기념장을 수상했다. 또 일본대농회가 주는 농사공로자 표창도 받았다. 즉 기부행위의 결과가 목배 4조고, 식산흥업의 정책에 이바지해 금패, 은배, 표창과 부상을 받았으며, 일제의 지배정책에 동조한 공로가 대정대례기념장 수상이었다. 따라서 1912년의 목배 1조를 제외한 1910년대에 보이는 일제의 포상은 일제의 정책 수행에 순응하고 협조한 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일제가 그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평가가 결국은 1920년 도지사가 임명하는 경남도 평의원이나 중추원 의원 후보자로 발탁되는 계기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911년 울산군 참사, 1921년 경상남도 평의원, 중추원참의 후보로 이어지는 정치색이 우연이거나 일시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 각 지역의 토호세력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해당 지역의 학무위원회, 교풍회, 명치신궁봉찬회 등 관변단체와 각종 품평회에 후원금을 내거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얼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으로 보이지만,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일제의 정책 수행을 협조한 행위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학성공원을 조성해 일반에 개방한 일을 마냥 미덕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역유지로 일제와 돈독했던 그가 울산왜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나 도면작성 등에 대해 모르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진 일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가 회장을 맡았던 울산성지보존회도 일본인이 중심이 된 단체다.

1909년 1월 김홍조는 성격불상의 울산민의회를 주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제국 재향군인회 울산분회의 특별회원과 명예회원, 울산군 참사, 울산군 지주회 부회장, 경남교풍회 울산지부 고문, 시정오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남 평의원, 울산지방금융조합 조합장, 일본적십자사 특별회원, 명치신궁봉찬회 조선지부 경상남도 군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 1919년에 조선경제회 이사에 선임되었고, 1920년에는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경남도 평의회 울산의원이 되었다. 다음 해 3월 중추원 의원 후보 선출에서 21명 중 차점자가 되어 도지사가 추천하는 6인의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해 7월에는 조선인산업대회 발기총회에 참석했다. 또 1922년 8월에는 어용 농민단체인 소작인상조회 울산지회장에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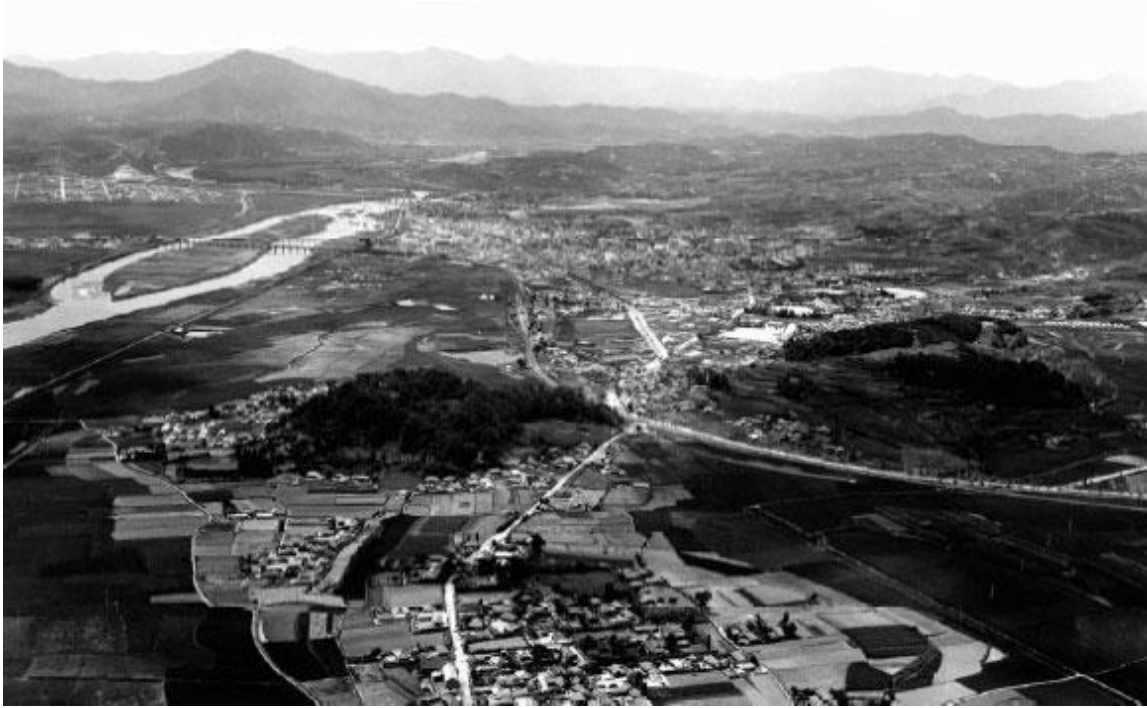
이런 행위들은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흔적이다. 일제가 노린 계층과 세대 간 분열 정책과 전시효과를 노린 정치선전에 놀아난 것이다. 그것은 또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고, 식민지 지배에 동조하거나 직간접으로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한때 개화파다가 친일파로 변신한 박영효처럼 김홍조 역시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협력하고 있었다. 그의 행위들이 자발적이었으며,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행해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단지 그가 중앙에까지 널리 알려질 만큼 지명도가 높지 않았고, 지방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대부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제강점기 김홍조의 활동은 식민지 권력의 언저리를 맴돈 지역 유력자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등한시하고 그의 양지적인 측면만 애써 부각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역사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 비판이 전혀 없었고, 편협한 자료 활용과 오독까지 더한 것은 결국 보고 싶은 면만 보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역사학에서 바라보는 친일은 고답적이라고 비판받을 만큼 행위 중심이었다. 1890년 이후 친일문학연구는 임종국의 기념비적인 ‘억압적 담론’을 넘어 식민주의를 ‘헤게모니 담론’으로 보고 그 내적 논리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시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역사학은 당시에 일어난 사실을 다양한 자료로서 검증할 수밖에 없다. 김홍조의 활동에도 협력과 저항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은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지만, 저항은 임정과 독립청원서 제출 외에는 그 활동이 구체적이지 않다. 또 검증되지도 않는다. 그마저도 그가 대표로 독립청원서에 서명했던 불교진흥회는 친일성향의 어용 불교단체다. 따라서 그의 독립청원서 서명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3·1 만세운동 후에 일어난 그의 정치활동은 어떤 해명도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김홍조는 상해에서 겪었던 짧은 의정활동 경험에서 희망을 얻기보다는 독립이 힘들다는 현실 인식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후 행적에서 보인 정치참여와 어용단체 활동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지역유지로서 한두 번의 불가피한 협력이기보다는 자발적이며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와 일제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보답이라는 모습이었다.

그에게 지역유지의 역할과 친, 부일이라는 역사의식의 구분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가 일제강점기에 보인 오락가락한 행보는 근본적으로 의지의 문제로서 자기 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 부잣집 도령으로 성장한 그의 삶이 치열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 여기에 가깝게 지내면서 그에게 많은 향을 끼친 박영효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자신을 내던지지 못했던 삶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김홍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박영효바라기’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가졌던 초기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재양성, 특히 여성교육을 위해 노력했던 그의 열정만큼은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선각자로서 애초에 그가 가졌던 순수함을 간직한 유일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 학성공원에 세워진 김홍조 관련 두개의 비석

학성공원은 일제가 성지로 삼았던 곳이다. 조선을 침탈할 때부터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일제는 1910년 울산왜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연구에 들어간다. 그리고 1913년에는 울산왜성의 도면을 작성했다. 울산왜성은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좋은 소재였는데 왜군의 승리를 돋보여 조선과 중국의 무능함을 선보이는 선전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

1915년 울산성지보존회를 발족시키는데 이때 회장이 김홍조였다. 이미 1913년부터 김홍조가 왜성 일대 토지 7,000여 평을 사들여 가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껏 김홍조가 울산왜성 일대의 토지를 사서 가꾼 후 일반에 개방했고 그의 사후 아들 택천이 기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홍조가 보존회장을 맡았던 사실을 보면 완전히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다르게 판단해볼 수 있다.



울산성지보존회는 일본인 중심의 단체였다. 그것을 만든 것도 왜성을 성역화 하기 위한 관변성향의 시민단체가 필요한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홍조가 회장을 맡은 것 역시 울산왜성 연구 이후다. 물론 김홍조의 학성공원 사랑은 남달랐던 것 같다. 그가 병영 조선부대의 우후였던 것을 따져보면 이것도 독특하다. 학성공원 정상의 동편에는 김홍조가 이수삼산을 즐겨봤다는 장소에 세운 비석과 사망 후 세워진 추모비가 가깝게 세워져 있다. 후손들은 김홍조의 묘를 학성공원 동편에 세웠다고 한다. 지금은 옥동으로 옮겨졌는데 다음의 신문기사²³⁾를 보면 그 경과를 볼 수 있다.

23) 2008.10.01 『경상일보』 [울산의 선각자]63(끝). 김홍조 학성공원에 묻히다 - 추전 김홍조

학생공원 알아보기



- 1. 총의사 조망
- 2. 삼지환 출입구
- 3. 박상진 의사 추모비
- 4. 서덕출 노래비
- 5. 이지환 터
- 6. 김홍조 공덕비
- 7. 본환 출입구
- 8. 울산동백
- 9. 본환

울산외성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울산 중구는 세계적 성곽 도시”

(신라~조선시대 성곽 6곳 존재)

이철영 교수 “반경 2km 내 밀집, 국내의 사례 드물다”

이창업 교수 “울산외성은 정유재란의 최대 격전지, 스토리 풍부”



정유재란 당시 도산성현 울산외성전투 장면을 묘사한 일본의 병풍그림. 울산외성의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 중구의 주요 성곽유적 및 울산외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곽유적과 울산외성의 정비방안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17일 오후 2시 중구청 2층 중구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다카시마 류헤이 일본 사가여자대학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우인수 경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철영, 이창업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간디자인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담당했다. 주제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연한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교수가 진행을 맡고 정상태 중구문화원 원로

사업구조 소장, 심정보 한밭대학교 교수, 이영훈 울산mbc 제작부장 이 지정보로자로 참석해 주제 발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시민, 지역 유관기관, 학계, 언론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해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16일에는 울산외성 등 현장 답사가 진행되었다.

■ '중구' 라는 공간적 테두리에 6개 성 포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간디자인부 이철영 교수는 울산 중구에는 신라~조선시대 성곽 6개가 있으며, 좁은 구역에 이렇게 많은 성을 지닌 중구

는 세계적 성곽도시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신라말의 계백성(일명 학성), 학성에 딸린 작은 성이었던 '반구동 토성', 고려말 학성 서쪽에 들로 쌓았던 '고을성', 조선시대 울산 행정의 중심지 '울산읍성',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머물렀던 군사 중심지 '병영성',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이 쌓은 '울산외성' 등이 여러 시기에 걸쳐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구라는 공간적 테두리,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 행정구역에 이렇게 많은 성이 포진해 있는 것은 국내나 해외사에서도 찾기 힘들고 성의 종류도 다양하다"며 "계백성을 중심으로 2km

내 성들이 위치해 있어 밀집도도 높고 성곽의 관점에서 보면 중구는 세계적 도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울산외성에 대해서는 "주파부와 외파부로 구성된 본성 외에도 주변에 3개의 지성(支城)을 거느린 구조로, 국내 외성 중에서도 그 사례가 드문 큰 규모와 독특한 배치형태를 가졌으며 16세기 일변성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근세 한일성곽의 축성법을 비교 연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성곽문화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울산외성은 정유재란이 시작된 1597년 11월~12월까지 2개월 동안 왜군 2만3천여명이 동원돼 축조된 성으로, 울산읍성과 병영성의 허물고 거기서 나

온 돌을 재사용해 지어졌다.

■ 성곽복원 후 정유재란 전문 전시관 등 건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공간디자인부 이창업 교수는 "울산외성 정비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외성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문과 성벽 등을 제대로 복원하고 일대에 정유재란 전문 전시관, 삼국문화거리 등을 건립 또는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울산외성의 강점으로 정유재란의 최대 격전지였다는 점, 역사성과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

등 장단점과 연계개발이 중요하다는 점, 울산성전부를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역사적 실체의 보존과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성벽수리, 학술조사, 옛길복원 및 테마화, 중구 역사탐방길 개설, 편익시설 설치 등 세부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성벽 수리와 함께 전망대, 방문자센터, 상징조형물 등 유적 관련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본관의 주출입구에는 성문을 복원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반응]



울산 학성공원에 왜장 '가토 기요마사' 동상 건립 논란

日네티즌 "한국이 왜만들어? 이해불가"

울산 중구청은 학성공원의 일본왜성 정비사업을 위해 거액의 돈을 집어 넣었다. 2013년 울산 왜성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울산왜성 성곽정비(2014~2020년·소요예산 32억원)를 시행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부터 “학성르네상스” 조성사업(2018년 5월까지·예산 1억원), 2018년 3월부터 근린공원 정비(2018년 10월까지·1억5,000만원)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2017년 말에 지역사회에 큰 논란거리가 발생했다. 울산왜성 입구에 조명연합군과 대치한 왜군을 형상화하기 위해 왜장 가토 기요마사 동상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이런 계획은 울산 뿐 아니라 전국 소식으로 나가면서 지역 내의 망신살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심지어 일본으로도 보도돼 일본 네티즌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결국 가토의 동상을 세우는 계획은 무산 됐다. 정확히 말하면 동상만 세우지 않은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동상은 납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했거나, 어딘가에 보관됐을 것이다. 동상이 세워질 자리를 남겨 놓고 일본군의 모습을 드러낸 후 일지별로 울산왜성전투(도산성전투)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 한바퀴를 돌다 보면 무언가 하다 만 것 같은 어설픈 울산왜성 조성(복원)사업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이래저래 아쉽고 안타까운 풍경이다.



□ 서생포 왜성



▲ 『1872년 지방지도』 내 수록되어 있는 「울산 서생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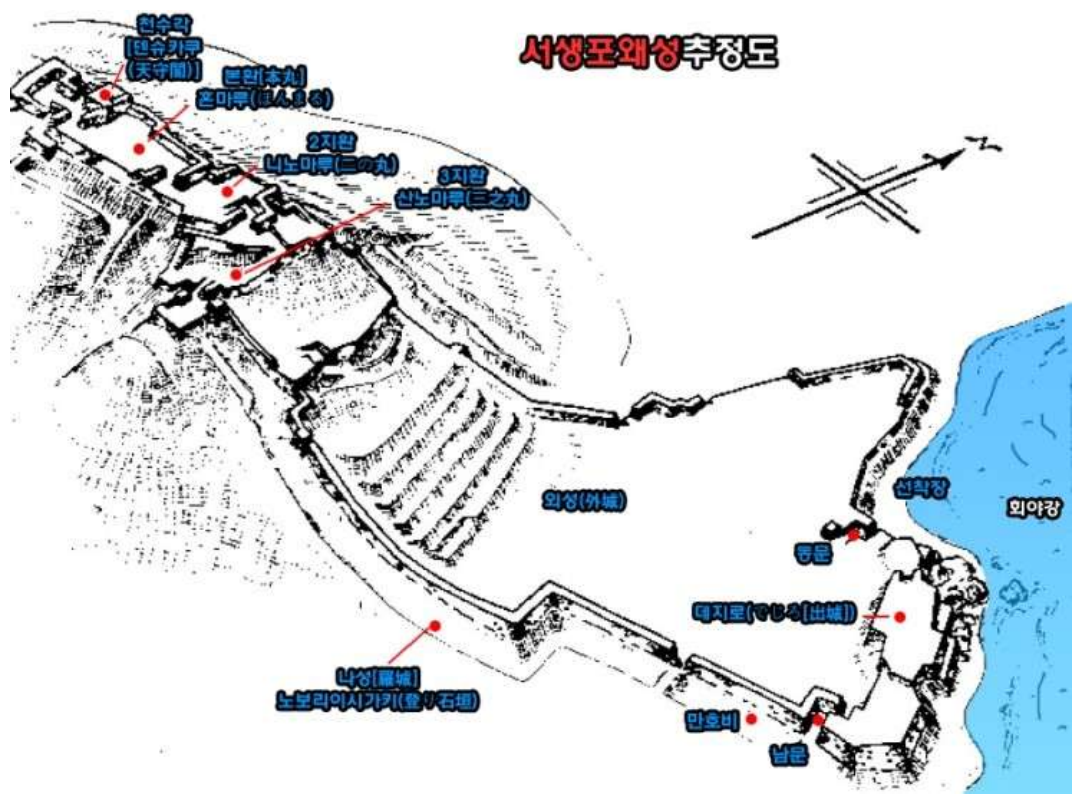
서생포 왜성(西生浦倭城)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가 1593년 임진왜란 때 축성한 왜성이다. 남쪽의 임랑포 왜성, 기장 왜성, 동래 왜성, 부산 왜성과 더불어 정유재란 때는 북쪽의 울산 왜성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서생포 왜성의 입지는 평지와 산지를 성벽으로 두른 평산성(平山城)이다.

서생포 왜성은 1593년(선조 26) 5월에서 7월 사이에 본격적인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594년(선조 27) 4월부터 가토 기요마사와 서생포 왜성에서 강화회담을 하기 위하여 입성한 사명대사(四溟大師)[1544~1610]의 적정(敵情)에 관한 내용이 『분충서난록(奮忠紓難錄)』에 실려 있는데, 서생포 왜성이 고로(高櫓)가 있고 화려한 어전(御殿)을 가진 성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明)과의 강화교섭이 성립되어 서생포 왜성의 일본군이 철군하였으나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서생포 왜성은 다시 가토 기요마사의 근거지가 되었다. 1597년 8월 서생포 왜성에 있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전라·충청도로 진격하자 아사노 요시나가(淺野慶長 1576~1613)가 3,000명의 군사로 이곳을 수비하였고 10월경에 충청도 공략에 실패하여 돌아온 가토 기요마사는 1597년 12월 22일 57,000명의 조명 연합군이 울산 왜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산 왜성에 입성하여 1598년 1월 4일까지 고전하였다. 1598년(선조 31) 1월에는 고립된 울산 왜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1568~1623) 등의 2만여 병력이 서생포 왜성으로 집결한 적이 있다.

1598년 5월부터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여 철군하기 직전까지는 구로다 나가마사가 수비하고 있었으며, 11월경에는 울산 왜성의 가토 기요마사와 함께 구로다 나가마사가 철수한 뒤에는 명나라 마귀(麻貴) 제독이 입성하였다.

일본군이 물러간 뒤에 서생포 왜성은 경상좌수영 소속의 수군동첨절제사영(水軍同僉節制使營)으로 사용되었다. 서생포 왜성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5월 3일 사적 제54호로 지정되어 광복 후에도 유지되었으나 1997년 1월 1일 해제되었고, 1997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9호로 재 지정되었다.





▲ 임진왜란 당시 서생포왜성의 구조 추정그림

서생포 왜성은 16세기 말 일본에서 발달했던 전형적인 연곽식 평산성이다. 회야강 하구의 작은 포구를 끼고 해발 133m 고지의 산정에 내성(內城)을 쌓은 뒤 동쪽 경사면을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의 2~3단의 부곽(副郭)을 두었으며, 그 아래로 산 아래까지 점차 길고 넓어지는 출성을 배치하였다. 성 바깥에서 내성과 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각각 3개씩 있다. 외벽 바깥에는 2·3중으로 해자를 둘렀다.

성곽 전체 면적이 해자를 포함하여 약 150,000㎡에 달하고 해자를 제외한 외성곽의 길이가 약 2.5km, 평면상의 직선거리는 동서 약 870m, 남북 약 370m에 달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왜성 중 가장 웅장하고 보존 상태가 좋다.

성의 내외부에는 다수의 우물 터가 발견된다. 석축은 외성은 내탁식(內托式)이고 내성은 협축식(夾築式)이다. 기울기는 지면에서부터 60°가량이다.



○ 조·일 강화 교섭 전개 - 서생포 회담

1592년 4월 왜군이 조선을 침공한 후 왜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에 강화교섭을 추진했다. 조선은 회담 자체를 거부하다가 왜군의 1진이 평양을 진입하기 직전인 6월 9일 첫 회담에 참여한다. 왜군이 지목한 대사헌 이덕형은 대동강 선상에서 왜의 대표 양천조신, 현소 등과 마주한다. 회담에서 조선은 먼저 회군한 다음 화의를 논하자는 것이었고, 왜는 명나라에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회담은 결렬된다.

명나라 군이 조선에 파병된 후 왜는 조선을 제외시키고 명과 직접 강화 교섭을 한다. 조선은 이 때 양쪽이 야합해 조선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해 최악의 경우 단독으로 항전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었다. 이미 해주산성 혈전에서 왜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상황이었다.

명과 왜는 1593년(선조26년) 3월 7일 한성회담을 갖고 왜는 서생포부터 웅천에 이르는 경상도 해안지역으로 물러간다. 그리고 명나라 강화교섭 사절단이 왜로 건너가 풍신수길을 만났다. 이때 전쟁 종결의 조건으로 명 황제의 공주를 일본 국왕의 후비로 삼자는 이른바 7개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사명대사와 가토의 서생포 회담은 명과 왜 교섭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1594년 4월과 7월, 그리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7년 3월 등 3차례 열렸다. 조선은 애초 일본과의 강화에 완강히 반대했으나, 명이 “계속 강화에 반대하면 군대를 압록강 이북으로 빼겠다”며 압박을 가하던 터에 가토 쪽의 요청에 따라 회담에 응하게 됐다.

독실한 불교도였던 가토 진영에 승려나 불교도 참모가 적잖았던데다, 사명대사가 승려로서 승병을 이끌고 평양성 전투 등 중요한 전투에 참전해 전란의 흐름을 잘 꿰고 있던 점을 고려해 가토와의 교섭 파트너로 선택된 것이다.

4월13일~16일 진행된 첫 회담에서 가토는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의논할 때 고승을 불러 상의하는데, 귀국도 고승을 보내온 것은 이 일을 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사명대사는 이 자리에서 가토를 통해 조선 4도의 할양 등 명과 고니시 사이에 논의되던 협상 내용을 알아냈고, 고니시가 주도하는 협상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가토의 속내도 파악해 조정에 보고했다. 이후 조선은 명과의 외교 채널은 물론 가토와 고니시의 경쟁·적대관계를 이용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7월12일~16일 두 번째 회담이 끝난 뒤 사명대사는 그간의 내용을 토대로 ‘토적보민사소’라는 상소를 올려 왜군과의 강화와 토벌의 장단점을 고하고 왜군을 토벌해 백성을 구하는 개혁방안을 건의했다. 이후 유정은 12월 23일 가토와 3차 회담을 시도했으나, 가토에 의해 거부됐다. 조선 쪽이 고니시와 따로 만나 ‘양다리를 걸쳐 기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같은 해 11월 고니시가 명과의 강화협상과 별도로 조선에도 손을 내밀어 함양에서 경상 우병사 김응서와 만난데서 비롯됐다. 고니시는 ‘명과 관계를 트는데 조선의 주선’을 바랐고 김응

서는 거부했다. 이 함양회담은 가토가 사명대사를 만나 조선과 교섭하는 것을 의식한 고니시의 대응으로 보인다.

이 무렵 고니시는 어떻게든 명·일간 강화를 성사시키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짓 항복문서를 만들어 명 조정에 전달했다. 결국 명이 도요토미를 일본국왕으로 책봉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1596년 9월 오사카 회담에서 최종 실패로 끝났다. 사명대사는 1597년 3월 18일 가토의 요청으로 그와 만난 마지막 회담에서 일본의 재침을 막으려 온 힘을 쏟았다.

서생포 회담은 당시 명과 일본이 주도하던 강화 교섭에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토 분단의 위기를 넘기는데 기여했다. 유정과 가토의 서생포 회담 내용은 <송운대사분충서난록>에 자세히 실려 있다. 이 책은 사명대사가 일기 형식으로 남긴 글을 뒤에 제자가 발간한 것이다. '송운'은 사명대사의 또 다른 법호다.



○ 서생포 왜성 이전에 있었던 서생포 진성

“서생포 왜성’과 ‘서생포 진성’은 이름이 비슷한 데다 지척지간에 있어 헷갈릴 수 있다. 서생포 왜성은 임진왜란 중 일본군들에 의해 새로 쌓은 성인 데 반해, 서생포 진성은 조선 수군 주둔지로 임진왜란 때까지 존재했다가 전쟁 초기 파괴되고 말았다. 현재 서생포 왜성은 웅장한 모습으로 잘 남아 있으나, 서생포 진성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서생포 왜성은 진하해수욕장이 정면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서생포 진성은 진하해수욕장에서 남창쪽으로 가는 도로 왼쪽에 있어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²⁴⁾

조선 전기 울산에는 서생포 만호진성, 염포진성, 개운포진성 등 세 곳의 수군진성(水軍鎭城)이 있었다. 진성(鎭城)은 국경 및 해안지대 등 국방상 중요한 곳에 쌓은 군사적 성격의 성을 가리킨다.

진성(鎭城)은 국경 및 해안지대 등 국방상 중요한 곳에 있었던 군인들의 주둔지로 지금의 대대급에 해당하는 군부대다. 조선 전기까지 울산에는 염포, 서생포, 개운포 세 곳에 진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서생포만호진성은 지금의 서생, 온산, 온양 바닷가로 침투하는 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곳 지휘자인 만호(萬戶)는 3품으로 병선 20척, 군졸 767명을 지휘하였다.

서생포만호진성은 회야강이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륙한 적에게 성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바다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면서 동시에 내륙과 연락이 편리한 곳에 자리 잡았다. 성은 산에서 뺀어내려 온 구릉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구릉의 경사면과 평지를 연결하여 축조한 포곡식(包谷式)이며, 성벽은 수직으로 견고하게 쌓은 석축성(石築城)이다.

성벽의 석축은 장대석(長大石)을 가로놓혀 지대석으로 삼고 그 위에 대형의 석재로 기단석을 쌓았는데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로 쌓았다. 내부는 소형의 할석(割石)으로 뒷채움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 바깥으로는 해자도 있었다. 이곳 해자는 적의 침입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겠지만 동시에 산비탈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돌리는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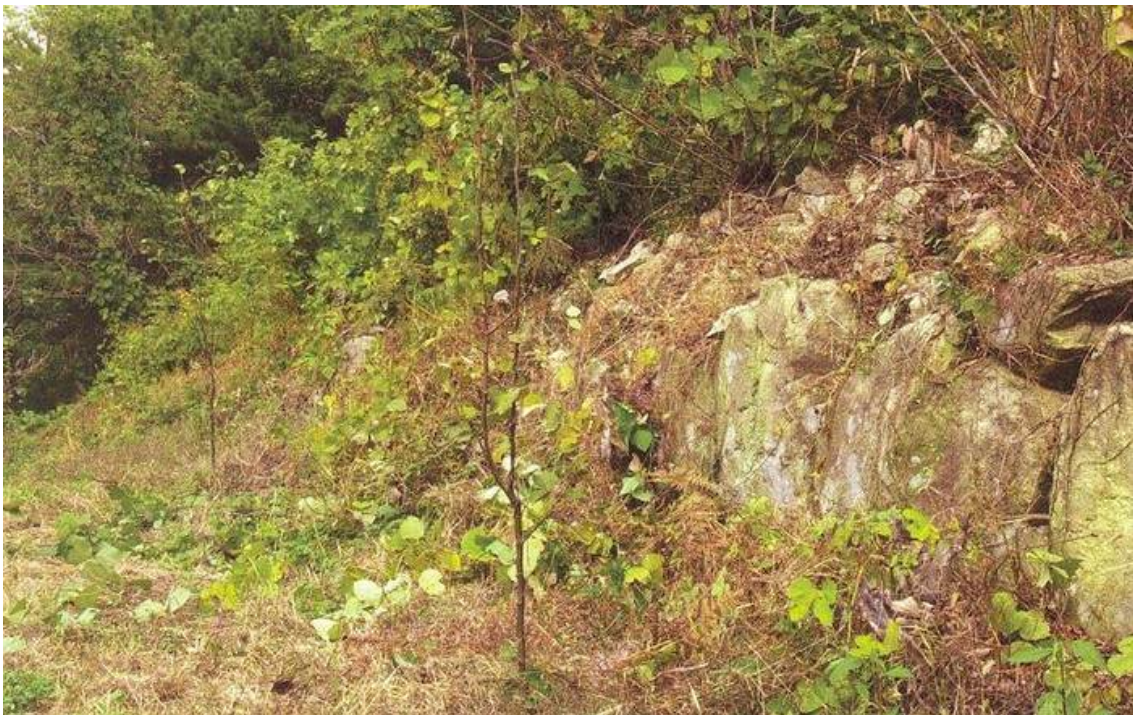
서생포만호진성은 진하해수욕장 입구인 서생면 화정리 구진마을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웃구진마을 주위 약 7590㎡(2,300평)의 면적에 자리 잡고 있다. 서생교 서쪽 끝부분과 마주 보고 있는 산 구릉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는 사각형 성이다. 현재 성터 흔적은 1/4정도 남아있으며, 성곽 동쪽 부분은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원래 모습은 바로 강가까지 성을 쌓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파도를 피하면서 배를 정박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노출되지도 않는 곳이다.

24) 울산저널i “서생포 왜성” 쓰담 / 김문술 전 울산역사교사모임 회장

서생포만호진성은 웃구진 마을에 있다. 이 마을 바로 옆으로 구진마을, 진하마을이 있다. 이들 마을 이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진鎮’이라는 지명은 모두 서생포진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구진(舊鎮)은 옛 서생포진성 있었던 곳, 진하(鎭下)는 서생포진성 아랫마을이라는 뜻이다.

서생포만호진성의 축조 시기는 조선 초기로 추측하고 있다. 이 성과 같은 성격의 염포성을 성종 21년(1490) 5월에 쌓은 것으로 보아 이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 그 후 1592년 임진왜란 때 함락되면서 성벽의 벽돌은 바로 이웃한 서생포 왜성을 새로 쌓는 데 이용되었다. 이렇게 이곳의 성돌을 헐어가는 바람에 지금 서생포만호진성의 성벽은 대부분 없어지고 기단석 일부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다. 성벽 길이는 440m, 너비는 4m 정도이고, 성 서쪽 출입문 시설이 일부 남아 있다. 그러나 주 출입문은 회야강과 바다 쪽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북동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서생포만호진은 전쟁 중 일본군이 새로 쌓은 서생포왜성에 자리 잡아 1895년까지 주둔하였다. 전쟁 중 일본군이 쌓은 성에 우리나라 군대가 주둔한 것이다. 헐리고 난 서생포진성은 이후 복원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반면 서생포왜성은 전쟁 후 서생포만호진 부대가 19세기 말까지 주둔하는 바람에 잘 보존될 수 있었고, 이어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당국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게 되었다.



03

부록

연수대상자 명단

강사평가 설문조사표

이수증 출력방법

울산교육연수원 신청사 안내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수 중 단계별 지침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울산 愛(애) 한바퀴 직무연수(2기)』
연수대상자 명단(26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비고
1	꽃바위유치원	원감	경진숙	
2	울산제일중학교	교사	공정민	
3	문현고등학교	교사	공진숙	
4	호계초등학교	교사	김갑련	
5	유곡중학교	교사	김경옥	
6	옥동초등학교	교사	김미자	
7	무거초등학교	교사	김은령	
8	청솔초등학교	교사	김은정	
9	대송고등학교	교사	김정남	
10	동평중학교	교사	김정미	
11	현대중학교	교사	김지우	
12	화봉고등학교	교사	김진혁	
13	화진초등학교	교사	김해숙	
14	고현초등학교	교사	나혜영	
15	명춘초등학교	교사	남경수	
16	청솔초등학교	교사	문미주	
17	전하초등학교	교사	이경숙	
18	울산상업고등학교	교사	이정희	
19	염포초등학교	교장	이창호	
20	삼평초등학교	교사	이현정	
21	태화초등학교	교감	정해철	
22	외솔중학교	교사	진정희	
23	약사가온유치원	원감	최순천	
24	울산중학교	교사	최정우	
25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하은주	
26	울산강남고등학교	교사	홍현정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평가 설문응답지

과정명: 2021년 울산사랑 역사인물 스케치-울산 愛(애) 한바퀴(현장체험) 직무연수

구분	설문내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 총괄	1. 연수목표를 달성하였다.					
	2. 본 과정의 이수가 자기계발 또는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교육 과정 편성	3. 교육과정 편성이 적절하였다.					
	4. 강사 선정이 적절하였다.					
	5.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었다.					
	6. 교육기자재 편의시설 및 연수환경에 만족하였다.					
강사 만족도	7. 강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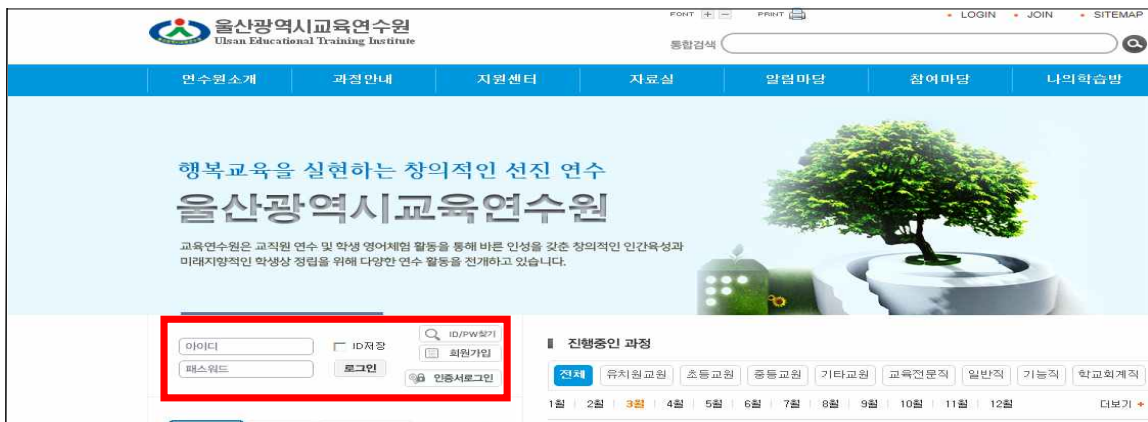
이수증 출력 방법 안내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1.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 <https://edu.ueti.or.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하기



● 로그인 방법 (2가지)

가. 로그인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하기

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LOGIN) ②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인증서정보> - <인증서 검색>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확인> - <인증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은 한번만 하시면 계속해서 사용(개인정보보호)

3. 이수증발급 버튼 클릭하기



3. 화면 좌측 이수증발급 클릭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창의적인 선진 연수
교육연수원은 조직원 연수 및 학생 영아체험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건육성과 미래지향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다양한 연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의학습방

● 이수증발급 홈 > 나의학습방 > 이수증발급

10 / 전체목록 : 13건

선택	번호	교육구분	과정구분	수강과정(년도/기수)	학습기간
<input type="radio"/>	13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2013년도 제6차 맞춤형 원격직무연수(학교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2013 - 1)	2013.11.05 ~ 2013.11.19
<input type="radio"/>	12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실현명) 원격연수(2013 - 1)	2013.09.09 ~ 2013.09.27

4. 발급하실 과정 및 선택 체크 후 인쇄화면 클릭

● 이수증발급 홈 > 나의학습방 > 이수증발급

10 / 전체목록 : 1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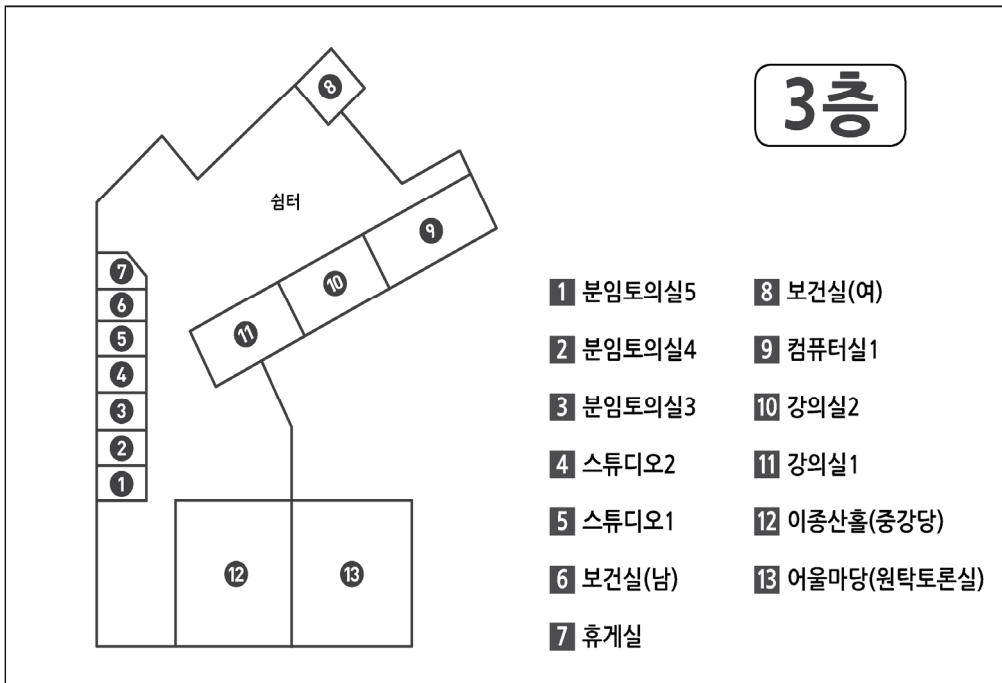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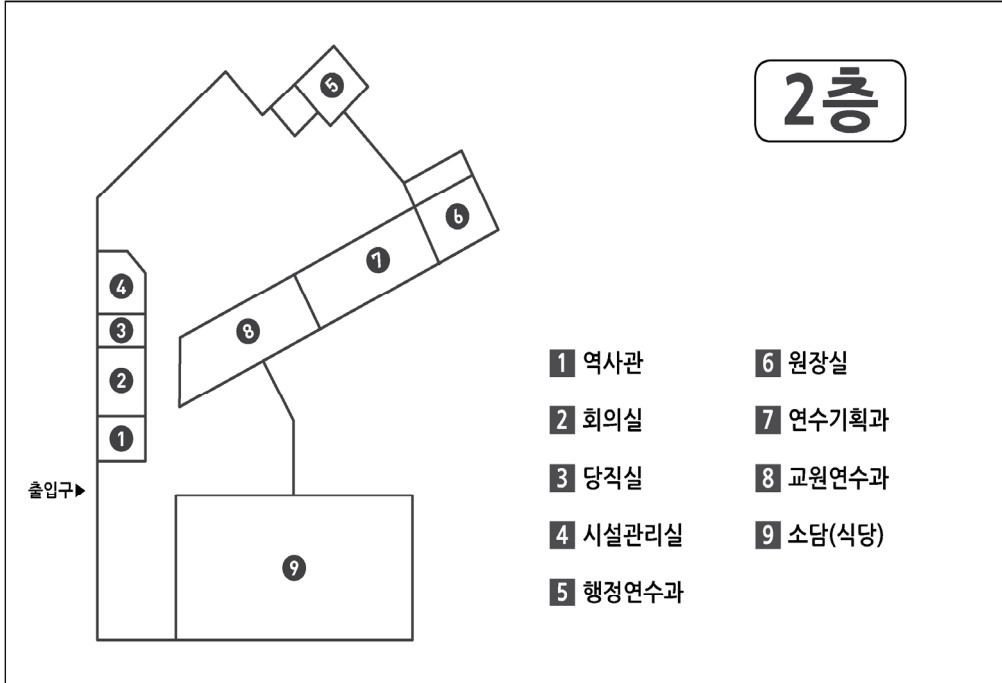
인쇄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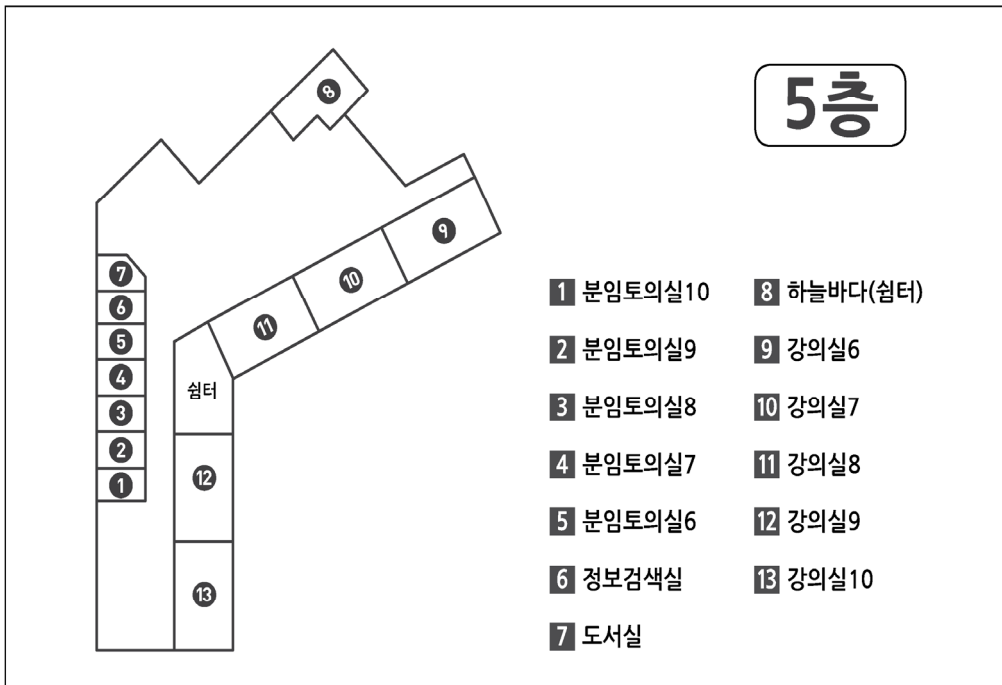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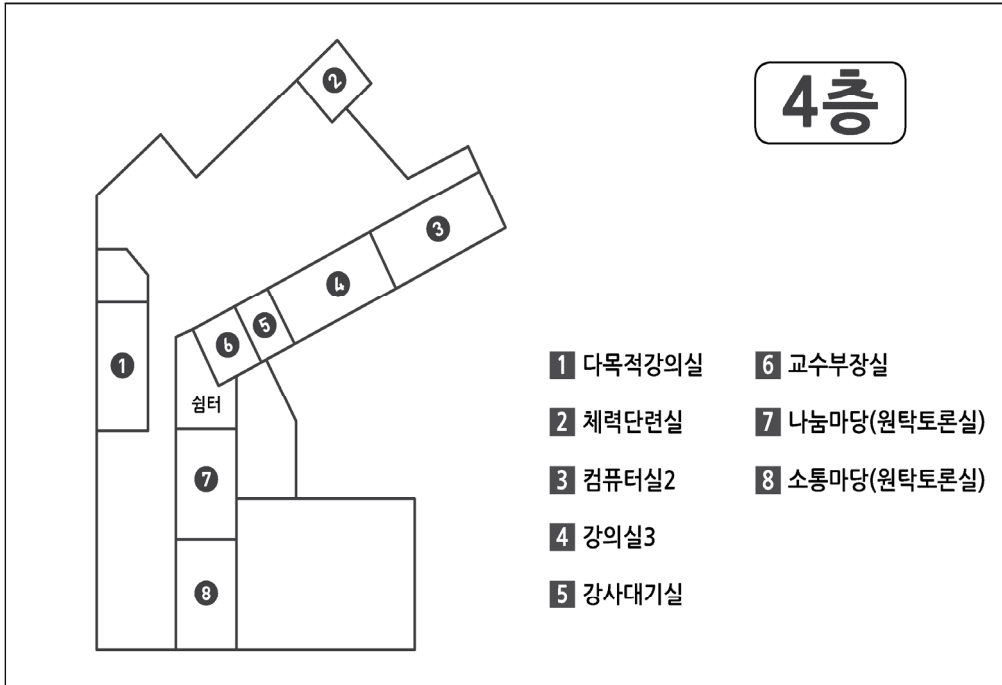
선택	번호	교육구분	과정구분	수강과정(년도/기수)	학습기간
<input type="radio"/>	13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2013년도 제6차 맞춤형 원격직무연수(학교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2013 - 1)	2013.11.05 ~ 2013.11.19
<input type="radio"/>	12	전문교육(교육공무원)	원격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스마트교육을 활용한 교실현명) 원격연수(2013 - 1)	2013.09.09 ~ 2013.09.27

5. 프린트 모양 버튼 클릭



기타 문의사항	연수과정 담당자
	교육연구사 현미윤 ☎ (052-250-052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연수 운영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 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 코로나19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유연한 대응
-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 출근 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는 경우 담당연구사에게 연락

□ 도착 시

- 건물 앞쪽으로부터 출입
- 건물 현관에서 발열 체크 및 확인/확인결과 작성
- 손 소독제 사용

□ 연수 진행 시

- 자연환기가 가능하게 연수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문을 상시 열어두기
- 개인 텀블러 등 개인 소품 사용하기

- (강사)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담당연구사) 연수 시작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급식 시

-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 연수 종료 후

- 연수생은 연수종료 후 14일 동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담당연구사에게 연락

□ 공통

- 건물 앞쪽으로만 출입
-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 현관 발열 체크는 출근 시, 점심 식사 후 입장 시 2회 실시
- (연수 중 이상증후 발생 시) 남, 여 보건실로 이동/격리 후 담당연구사에게 연락한 다음 매뉴얼에 따라 조치

